

2022년 순천 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

---

#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

- 지신지신지신아, 청룡지신을 올려라 -

---



(사) 문화공간 소리골 남도

## 머리말

순천은 지리적으로 전남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과 문화의 중심에서 성장한 거점 도시이다. 이는 많은 역사적 사건의 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풍토적 조건인 생태학적으로는 산업과 문화적, 예술적 자산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발전됨을 알 수 있다.

민속이란 그 지역의 민간에 남아있어 현재 전승되는 제문화(諸文化)를 일컫는 말로 서민 대중의 사유, 언어, 행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한 유형. 무형의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순천지역은 해안과 산악, 농경 지역이 복합적으로 위치하여 마을 사람의 생존과 연계된 사회적, 역사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풍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통 민속 예술 또한, 각 마을의 환경에 맞춰 발전, 전승되어 짐을 볼 수 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4호 송천 달집태우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2호 구산 용수제가 무형 유산으로서 마을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마을과 가정에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3호 삼설양국은 무속 의례로 망자와 산 사람 간의 공존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들노래, 상여소리, 줄다리기, 짐대 세우기 등등 각 마을의 단합과 안녕을 위한 행위와 의례들이 행하여지고 발전됨을 볼 수 있다.

순천 운곡대보름액막이굿은 한 해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질병과 재앙을 막기 위한 주술성이 강한 운곡마을의 집단 축제이다.

2000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라고 하는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풍물패의 악사로 참여했었던 기억을 더듬어 본다.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민속예술을 복원, 정리하고 연행으로 완성도를 높여 애썼던 치열한 과정이었다. (그 시절은 단순한 역할을 소화하기 바빴던 모습으로 기억되지만.)

최고의 작품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인정은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전승되지 못하는 아쉬움은 상대적으로 크게 남아있다고 보며, 순천문화재단의 '2022년 순천 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의 계기로 순천 운곡대보름액막이굿의 재현과 전승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첫 번째 작업으로서 기초적인 정리를 하고자 한다.

2000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하여 연행한 동영상 중심을 쓰다 보니 한계성과 부족함이 많다. 일단 진행 순서와 작품의 동선, 노래 가사, 음원 제작 및 인터뷰 등으로 정리하였으며 부족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연구, 정리하도록 하겠다.

순천의 전통문화예술 자산의 한 축으로 자릴 잡아가 길 바라며 도움 주신 순천문화재단과 정동준회장님, 김향순선생님, 김현진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마무리까지 애써주신 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연구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본 작업이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전승과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전통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남도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차례

1. 연구의 필요성 .....	1
2.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개관 .....	2
3. 운곡마을 .....	6
4.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 .....	7
5. 연구와 재현을 통한 이용가치와 활용 및 전승 방안 .....	31
6. 참고 문헌 .....	33
7. 참고 자료(악보) .....	34
8. 출연진 의상 및 깃발 .....	50
9. 순천 운곡마을 전경 .....	52
10. 2000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 홍보 및 안내 자료 .....	53
11. 2022년도 순천시 문화자원 콘텐츠 지원사업 진행 모습 .....	57
12. 인터뷰 자료(정동준) .....	58
13. 인터뷰 자료(김향순) .....	78

# 1. 연구의 필요성

개인이나 가정 또는 마을의 액운이나 그 외 불행한 일들을 미리 막기 위하여 액막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한다. 이런 행위는 보통 정월 초사일과 대보름 사이에 치러진다. 액막이는 현대의 관점에서 미신에 불과하지만, 병과 재난에 뚜렷한 대책이 없던 시기에는 일종의 신앙이자 심리적 위안을 주는 행위였다.

치성이나 비손이 소규모인 것과 달리, 액막이굿은 그보다 좀 더 큰 규모이고 정월의 점사 행위나 치성의례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치러진다. 문점이나 치성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생긴 불행한 기운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굿을 해서 불행한 기운을 잠재우거나 불운을 대신할 방도를 찾는 것이다. 이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불행한 일을 염려해 미리 경계하려는 방법이다.

이러한 가족 단위의 가정집 굿 형태의 액막이굿이 아니라,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굿 형태도 있다. 정초에 농악대가 지신밟기를 하거나 대보름굿 등의 당산제를 하면서 액막이를 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은 한 해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질병과 재앙을 막기 위한 마을 집단의 주술적인 축제이다. 탐신제로 시작하여 집대 세우기, 디딜방아 액막이, 탐석 줄감기, 뒷풀이 순으로 연행된다. 이런 행위는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지역에 두루 행해졌다.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은 2000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남지역 대표로 참가하였는데,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보존 가치가 높은 향토 문화유산임이 검증되고도 남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실상은 보존과 재현 그리고 전승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 남도는 이 작품이 지역 사회에 전통예술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이 기록은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의 복원과 재현으로 순천시민들의 행복한 공동체 민속놀이 문화를 만들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 기록 방법은 성악, 타악(장단), 연행 부문으로 나누어 자료들을 수집·조사·분석하고, 생존해 계신 전통예술 관계자와 마을 주민의 인터뷰(인터뷰 음성파일) 요약 및 정리, 참가했던 대회 영상 정리 순이다.

## 2.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개관

### 1) 설립과 구성

‘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남도’는 2005년에 설립되어,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지역 전통예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조직은 소리골남도 예술단, 전통연희단 모아, 명수네 사물놀이, 다문화 희망풍물단, 설장구연구모임 어울, 순천농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역할 인식과 지향점

#### ① 전통예술의 보존과 전승 및 보급

전통민속예술이라고 하면 요즘 시대 환경에서는 유행에 뒤처져 있는 분야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소규모 지방 도시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융복합이니 콜라보니 하며 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 신기술과의 조합, 일명 볼거리와 즐거움의 감각이 우선시되고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가거도 뱃노래를 주제로 한 소리굿 ‘만선’의 공연 모습〉

전통은 흥행이나 유행이 아니라 선조들의 가치와 뜻을 현시대와 더불어 미래로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전해온, 후대에 전해줄 이야기와 삶이 녹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전통문화예술이 지닌 전통성을 지켜가며 소중한 문화유산 가치를 연구, 기록, 전승하며 공연과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하여 구성원이 예술가로 성장함과 동시에 예술문화의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예술인의 한계성과 고민을 풀어내고자 10여 명의 전업 예술인과 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 ② 공연 형태의 다양성 및 마당문화 개척

향토 문화유산을 재해석한 창작작품을 비롯한 대중음악들과의 콜라보, 지역의 역사나 지명·설화 등을 이용한 새로운 공연 콘텐츠 제작 및 마주 보고 하는 공연문화보다는 함께하는 마당문화에 중심을 두고 접근하려 한다.

## ③ 향토예술의 발굴 및 저변확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아 사장되거나 가치의 중요성이 알려졌음에도 보존·전승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문화예술 자원들에 대해 사람들은 점점 무감각해져 간다. 그렇게 사라져가는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해 나름의 역량으로 재해석하고 지역 정서의 수위에 맞춰 풀어나가면서, 후배 예술인과 지역민들이 전통문화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 ④ 다양한 연희활동

타악 중심의 다양한 지방 농악을 비롯한 사물놀이, 판소리, 향토민요, 굿 등의 전통문화유산을 개개인별 학습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타 장르와의 협주, 창작곡 및 작품의 제작, 발표 등의 활동을 늘리고 있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에 힘쓰며, 획일적인 레파토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소재들을 작품화하여 소통하는 예술문화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

## ⑤ 국악교육의 활성화 및 보급

전해 받은 스승의 가르침을 후학들에게 물려줌과 동시에 널리 대중에게 알리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하나의 가르침은 해석과 정리하는 이의 주관적인 입장에 의해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

## 3) 공연과 활동

1962년 8월 28일 폭우로 순천 동천이 범람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2009년 8월 28일부터 매년 '가신이 위령제 및 동천문화제'를 주관하였다. 또 '滿船(만선)'을 비롯해 각종 공연을 개최하거나 초청되었으며, 국악 부분 경연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활동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2022.8.28	8. 28 가신이 위령제 및 동천문화제 주관
2022.10.26~12.23	찾아가는 예술활동 예술유랑단 참여(전남지역 초등학교 순회공연)
2022. 11. 15	어영차 우리배가 만선일세 '滿船'(만선) 주관 (순천문예회관 대극장)
2022. 10. 14	2022 대한민국예술축전 국악 부문 참가(울산문화예술회관)
2022. 4~11	야고라 순천 탑10 개막공연 및 상시공연(사물판굿)
2021. 10. 14	2021 대한민국예술축전 국악부문 참가(구미문화예술회관)
2021. 10. 09	제40회 대한민국국악제 공연 참가(서울 남산국악당 해태홀)
2021. 04. 28	순천시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 개장식 초청공연(구,충무초등학교)
2021.12.10~12.17	찾아가는 예술활동 예술유랑단 참여(전남지역 초등학교 순회공연)

2020. 12. 21 2020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악마당'향일화'(순천문예회관 소극장)

2019. 11. 26 만선지 기쁨을 노래하다'滿船'(만선) 기획공연(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019. 7.16-25 길거리 국악 콘서트'버스킹 걷고싶은거리' 참여  
(순천 버드네 공원. 강청마을 수변공원, 여수 동백원)

2019. 7. 18 여수 연도 '알콩달콩 섬마을 별빛 음악회'(여수연도초등학교)

2018. 11. 23 제3회 세계 주니어 정구선수권 대회(팔마체육관) 축하공연

2018. 10. 27 순천만 한방 웰리스 축제 축하공연(순천만국가정원 한방센터)

2017. 12. 13 전남문화관광재단 도.내외 교류 지원 사업 "2017 사랑방콘서트  
- 만남,그리고 교감-"기획 및 주관 (순천문예회관 소극장)

2017. 11. 12 건강과 행복을나누는 웰니스 축제 개막공연 (순천만한방체험센터)

2017. 10. 26 2017 별빛 쏟아지는 두명안 가을밤 초청공연 (여안초등학교)

2017. 10. 13 제35회 팔마시민예술제 및 순천시민의 날 개막공연  
-강남풍·류-(순천시청 특설무대)

2017. 5. 3 순천 금룡사 부처님 오신날 기획 공연'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룡제'

2016. 12. 17 2016 동감 기획 및 공연(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015. 12. 24 2015년 순천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주관(순천 송산초)

2015. 11. 11 전남도 내,외 교류사업 '허튼굿' 주최, 주관(제주문예회관 소극장)

2015. 10. 29 순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협연(순천문예회관 대극장)

2015. 7. 3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대회 개막식 공연

2015. 5.17-24 한. 중국 원양훈련 파견 행사(중국 닝보)

2015. 4. 25 '굿.바람' 풍물한마당 추진 및 참가(남원 주천면)

2014.7.24.-8.26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여 및 파견(씨벤유극장)

2014. 8. 10 2014 순천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주관(순천 해룡면 호두리)

2012. 9. 5 영국 런던 템즈 축제 참가(올림픽)

2012. 5~8월 여수 엑스포 전통마당 연희단 팔산대 상설공연(한국 문화재보호재단)

2011. 10. 31 순천시 무대작품제작지원사업 전통타악연희굿'인연'주관

2011. 8. 26 순천 조례호수도서관 초청공연'에라디여 풍악을 울려라'

2010. 11. 6 국제 정당회의 축하공연 (캄보디아)

2010. 10. 21 '명창과 명무가 만나니 이 아니 신이 날까?'제작(광양문예회관)

2008. 11. 24 2008 무대공연작품'2008 동천'제작(순천문예회관 대극장)

2007. 12. 3 여수 토속 노동요와 상문살 굿(여수시립국악단)

2007. 10. 22 순천시 무대공연작품 -문화공간 소리골남도과 함께하는 2007'소통' 주관  
(순천문예회관 대극장)

2007, 9. 여수시지구촌사랑나눔회 '아프리카사랑나눔봉사단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순회 공연)

2007. 5~6월 경북 영주 마당극 참여(초군청 재판놀이-선비촌)

2007. 5. 10 제14회 여수시립국악단정기연주회 협연'순풍에 돛 달아라'(여수시민회관)

2007. 5. 5 제50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개막공연'밀양아리랑 환타지'  
(남천 둔치 야외공연장)
2005. 11. 16 "통일을 위한 평화 음악회"- 로얄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5. 10. 13 "양악과 국악의 만남" 한국의 소리를 찾아서- 부산시립교향악단협연  
(부산문예회관)
2005. 3. 8 남무"춤추는 처용아비"반주 (LG아트센터)
2004. 11. 26 "춤을 부르는 소리"반주(KBS 대극장)
2004. 10. 11 "춤추는 바람꽃"여성농악 - 제작, 공연 참가(호암 아트홀)
2004. 8. 7 "BLACK & white" -2004 춘천아트페스티벌 참가  
(춘천어린이회관 야외무대)
- 2004.11.16.-17 남무"춤추는 처용 아비들" 전국 순회공연 참여(고양 별모래극장)
2004. 1.9-11 춤의 시각 "유랑의 심청" 제작 참여(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사물 판굿과 사자춤 - 2022 '만선' 공연 모습〉



### 3. 운곡마을

운곡마을은 현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에 있다. 해발 122m의 산간마을로, 북쪽으로 국사봉을 등지고 남쪽으로 운동산이 보이며 서남쪽으로 순천시 낙안면과 경계하고 있다. 1570년경 조선 선조(宣祖) 때 영천 이씨(永川李氏)가 처음 자리를 잡아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마을 이름은 ‘굶실’이라고 불렀는데, 마을 뒤 국사봉 위에서 솟아오른 흰 구름이 마을 앞 저 멀리 위치한 운동산의 검은 구름과 서로 합하여 오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자주 생겨 구름 운(雲)자와 골짜기 곡(谷)자를 써서 ‘운곡(雲谷)’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운곡마을은 상사면 쌍지리의 쌍지마을과 봉래마을 및 낙안면의 간원 마을과 경계를 이루면서, 동쪽으로는 ‘대숲골’과 ‘소독골’을, 서쪽으로는 ‘무덤들’과 ‘산밭골’과 ‘벗당골’을, 남쪽으로는 ‘궁냥골’과 ‘맹박바위’와 ‘철철바위’ 등의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 안에는 또 ‘웃돔’, ‘중돔’, ‘구석돔’, ‘군래돔’으로 나뉜다.

마을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뒷산 국사봉에 나라가 위태롭거나 국정이 어지러울 때 국도사들이 국론을 의논하면서 봉화로 신호를 보냈다는 전령대의 성곽 및 기도로 국운의 안정을 기원했다는 층암절벽의 제단과 기도소가 지금도 남아 있다. 당시 기도소에는 약 2kg 정도 되는



동마(銅馬)가 있었는데, 그 동마의 머리가 향한 쪽은 사나운 짐승들이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들을 해쳤다고 한다. 국도사들이 국론을 의논할 때마다 오색구름이 일었고, 난시(亂時)에 군인들이 호위하기 위하여 온다는 ‘군래돔’과 ‘군두재’가 있으며, 당시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쇠붙이를 파냈다는 쇠굴산에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다.

마을 앞에 돌로 남근(男根) 모양으로 쌓아 올린 석탑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알지 못하는 병마로 인명 피해와 맹수의 침입이 심하여 도승에게 물었는데, 도승이 마을 앞에 석탑을 세우라고 하였다. 주민들이 정성을 들여 석탑을 쌓은 뒤로 병마와 맹수의 침범이 없어졌다고 한다.

〈순천 운곡 마을의 입석〉

## 4.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

액막이굿은 개인이나 가정에 닥치는 질병이나 고난 등의 액이나 액운을 미리 막기 위하여 행하는 민속의례이다. 액막이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행하는데,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마을 단위의 동제(洞祭)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액막이는 재액(災厄)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개인이나 가정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고, 또는 마을의 안정과 풍요를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액막이는 대개 정월에 하는데, 액이 닥쳐오리라 생각될 때 비정기적으로 행하기도 한다.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 운곡마을은 정월 대보름에 액막이굿을 한다. 정월 대보름 아침 절에 마을 공터에서 나발을 불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동구 앞 길목에 짐대(솟대)를 세우고, 밤이 되면 부녀자들이 마을 장정을 앞세워 이웃 마을 디딜방아를 훔쳐 와서 벌어진 방아다리에 과부의 월경[달거리] 피가 묻은 속곳을 입혀 돌림병과 살귀의 침입을 막는 의미를 담아 동구 앞 길목에 세웠다. 그리고 남녀가 편을 갈라 솟줄과 암줄을 이어 줄다리기를 하며 마을의 협동과 단합을 도모하였으며, 끝에 가서는 줄다리기를 하던 그 줄을 돌탑에 빙빙 돌려 감았다. 그리하여 운곡마을의 일 년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돌림병 같은 질병과 화재 등의 재앙을 막기 위한 마을 집단의 주술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다른 마을과 달리 호환(虎患)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도 들어 있었다.

운곡마을 액막이굿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그 마을 출신 정동준(鄭東俊)에 의하여 고증된 것이다.

정월 대보름 액막이굿은 먼저 탑신제로 시작된다. 이에 앞서 3일 전부터 제관(祭官)은 매일 목욕재계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끊고 부인과도 별거한다. 제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재계하고 탑과 그 주변을 말끔히 청소한다. 3일 전에 미리 준비하여 제관이 관리하고 있던 포(상어포 또는 명태포)와 과일(대추·밤·배·감)을 차려놓고, 탑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제관이 단잔(單盞) 헌작한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하염없이 손을 비비거나 두 손을 모은 채 탑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망을 기원한다.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은 짐대세우기 마당, 디딜방아 액막이 마당, 탑석 줄감기 마당, 뒷풀이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곡마을 액막이굿은 한 해 농사가 풍요롭게 되고 재난이 없기를 기원하는 발원성이 강한 집단적 제의와 주술적인 놀이가 복합된 마을굿으로, 유일하게 그 원질성을 보여주고 있어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있다.

연행과 관련한 의상, 악기, 노래, 동선 등 일련의 정리자료는 2000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영상을 표본으로 한다.

## 1) 짐대세우기 마당

짐대를 마을 수호신으로 신앙하여 매년 보름에 지내는 마을 공동제의이다. '짐대'는 지역에 따라 솟대·오릿대·진대·솔대·소줏대·수살간·당산 등으로 일컬어지며, 제사 이름은 짐대제·진대제·수살제·당산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을 주민들의 기원을 담은 신앙의 표현으로서, 지역에 따라 산신제·서낭제와 함께 시행하거나 단독으로 치러지고 있다.

짐대세우기 마당은 마을 앞 동구에 짐대를 세워 마을의 안녕과 수호 그리고 풍요를 기원한다. 짐대는 적당한 크기의 육송을 택하고, 오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 앉히는데 오리 머리가 마을 밖을 향하도록 세운다. 짐대 위에 오리 형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은 오리가 물에 살기 때문에 불을 막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짐대에 네 가닥의 줄을 늘어뜨려 잡고 마을 사람들이 원형으로 돌며 '달구소리'를 부른다.

### ■ 연행 순서

#### ▷ 입장

마당 좌측 뒷편에서 풍물패의 으뜸굿을 시작으로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이란 글이 쓰인 깃발을 선두로 놓기, 풍물패 순으로 2줄씩 줄지어 삼채장단으로 입장한다. 이때 여자가 먼저 가고 남자가 뒤따른다.

마당을 지나 우측 짐대 주변을 원으로 돌면서 흥겹게 춤을 추며 흥을 돋운다. (풍물패는 자진삼채장단을 연주 후 뗏는다.(그림1))

#### ▷ 사진



〈입장하는 모습과 동선〉



〈짐대세우러 가는 모습〉

#### ▷ 짐대세우기

상쇠의 일채(무장단)장단과 함성에 맞춰서 오리 아래에 늘어뜨린 네 가닥의 기다란 줄을 당기며 짐대를 세운다. 짐대가 세워지면 상쇠의 삼채장단에 맞춰서 원을 돌고 뛰면서 놀다 신호 장단에 맞춰 굿거리장단으로 바뀐다.(그림2) 상쇠가 굿거리 머리 장단으로 1장단을 연주한 후 풍물패의 반주에 맞춰서 '달구소리'가 시작된다. 굿거리장단이 끝나고 자진모리장단으로

연결되는 '잣은 달구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제각각 노래하며 신명나게 춤을 춘다. 소리가 끝나면 이를 받아서 풍물패의 삼채장단과 자진삼채, 이채장단으로 흥을 한번 더 돋운 후 맺는다. 세 번의 절을 한다. (일채장단(그림3))

▷ 사진



<짐대 상단의 오리 모습>



<짐대 세우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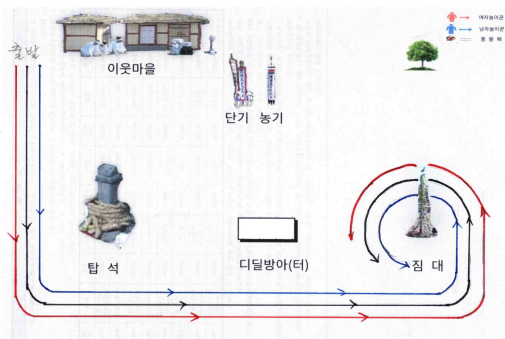
<짐대 세운 후 신명나게 노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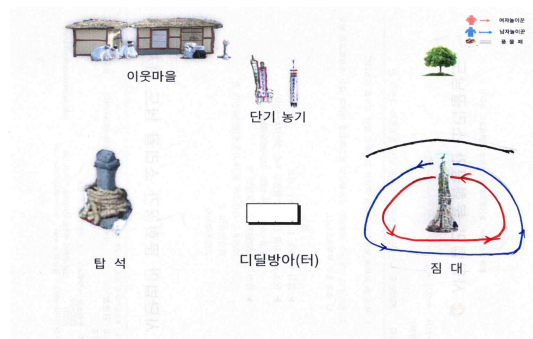
<짐대 세운 후 절하는 모습>

▷ 동선

(그림1)



(그림2)



(그림3)



▷ 연주 장단

■ 일채

× 3회

쇠	개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	·
징		징		징		징		징			
장구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	·
북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	·

■ 이채

× ?

쇠	갠	지	갠	지	갠	지	갠	지
징	징							
장구	덩		덩	궁	딱	궁		
북	등		등	등		등		

■ 삼채

머리장단

쇠	갠	지	갯	지	갠	지	갯	지
	갠	지	갯	지	갠	지	개	갱
징								
장구								
	덩		덩		덩	더	궁	딱
북								
	등		등		등	두	등	딱

기본장단

× ?

쇠	개	갠	개	갠	갠	지	개	개	갱
	갠	지	개	갱	갠	지	개	개	갱
징	징								
	징								
장구	더	궁	따	궁	딱	구	궁	딱	구
	딱	궁	따	궁	딱	구	궁	딱	구
북	등		등		등		등		등
	등	두	등	두	등	두	등	두	등

	둥	두	둥	두	둥	두	둥
--	---	---	---	---	---	---	---

\*팽과리를 비롯한 풍물패는 변주하여 연주하여도 됨.

자진삼채 넘기는 장단 × 2

쇠	갠	지개	개	갱	갠	지개	개	갱
징	징				징			
장구	덩	더	궁	딱	덩	더	궁	딱
북	둥	두	둥		둥	두	둥	

자진삼채(갠지갱) × ?

쇠	갠	지	갱	갠	지	갱	갠	지	갱
징	징				징				
장구	덩	더	궁	따	따	궁	딱	궁	딱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맺는 신호 장단

쇠	개	갱	개	갱	갱	갠	지	갱	개
---	---	---	---	---	---	---	---	---	---

▷ 달구 소리 반주 장단

■ 굿거리장단

내는 가락

쇠	개	개	갱	갱	갱	갱	갠	지	갱	개
---	---	---	---	---	---	---	---	---	---	---

반주 장단

쇠	갱	갱	갱	갱	갠	지	갱	갱	개
징	징				징				
장구	덩		덩	기	기	기	기	기	기
북	둥		둥		둥	둥	둥		둥

■ 자진모리장단

쇠	개	갠	개	갠	갠	지	개	개	갱
	갠	지	개	갱	갠	지	개	개	갱
징	징								
	징								
장구	덩	궁	궁	딱	궁	딱	궁	딱	궁
	덩	궁	궁	딱	궁	딱	궁	딱	궁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반주장단은 소리에 맞춰 자유롭게 연주한다.

\*메기는 소리에서는 첫 박만 들릴 정도로 작게 연주한다.

▷ 가사

달구소리 (굿거리장단)

메기는소리	받는소리
에헤루 달구	에헤루 달구
풍년일세 풍년일세	
우리동네 풍년일세	
시집가는 저 큰애기	
가마속에 요강들었네	
속곳속에 꽃피었네	
얼씨구나 달구야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달 지도록 노다가세	

(자진모리)

에헤루달구	에헤루달구
잡었네 잡었어	
청룡백호를 잡었네	
명당자리를 잡었어	
혼자가머는 토속꾼	
둘이가머는 황망객	
서이가머는 이꼬땅	
얼씨구나 달구야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달 지도록 노다가세	
에헤루 달구	

2) 디딜방아 액막이 마당

디딜방아는 절구에서 나왔다. 벼농사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디딜방아는 중국 한나라 초기에 등장하여 우리나라는 4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정월 대보름에 흠쳐 온 디딜방아를 마을 입구에 거꾸로 세워 두고 부인들 속곳을 거꾸로 입혀 잡귀나 질병을 막고자 한 풍속으로, 호남지역의 무주·진안·구례·곡성·순천 등지에서 액막이 놀이 혹은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등으로 부른다. 디딜방아는 지역에 따라 디딜방애·딸각방아·발방아·돈방아·드딤방아·드딜방아·손방아 등으로 불리며, 곡식을 뺏거나 찌는데 쓰는 도구를 말한다.

정월 대보름에 당산제가 끝나면 여성들이 인근 마을로 디딜방아를 흠치러 간다. 디딜방아를

흠치기 위해 여성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상대편 마을 사람들과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디딜방아를 흠쳐서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 여성들은 기세등등하게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축원가를 부르며 마을 남성들에게 한껏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을 신앙과는 별개로 여성들이 흠쳐 온 디딜방아를 동네 앞에 세우고, 그 위에 피보재기라고 하는 피 묻은 고쟁이나 황토를 바른 고쟁이를 뒤집어 씌워 놓는다. 디딜방아는 마치 붉은 것이 묻어 있는 은밀한 여성의 속옷을 입고 거꾸로 서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동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주위에서 마을 사람들이 신명나게 풍물놀이를 하는 것은 잡귀의 범접을 막고 마을의 안녕을 축원하는 것이지만, 성의 해방감을 통해 풍요로운 생산을 도모하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월이 지나면 디딜방아는 흠쳐 왔던 동네에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동네 앞 개울의 다리로 사용하기도 한다.

운곡마을의 디딜방아 마당은 이웃 마을에서 흠쳐 온 방아다리를 마을 앞 길목에 거꾸로 세워 묻고 갈라진 방아다리에 과부의 월경 피가 묻은 속곳을 걸쳐 놓고 고사를 지낸다. 월경 피가 묻은 속곳을 보고 흥역, 천연두와 같은 돌림병이 마을로 들어오다가도 “이 마을은 더러워서 못쓰겠다.”하고 도망간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부녀자들은 어느 마을에서 디딜방아를 흠쳐 올 것인지 논의한다. 대개 이웃 마을이나 인근 마을의 디딜방아가 대상으로 정해진다. 디딜방아는 한밤중에 몰래 흠쳐 온다. 흠치러 떠날 때 부녀자들은 하얀 소복을 갖추어 입는다. 이때 마을의 남자들이 디딜방아를 옮기는데 조력하기도 한다.

돌림병을 막기 위한 주술적인 방어의례에 쓴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디딜방아 주인은 순순히 내주는 경우도 많았다. 어쨌든 그 마을 어귀를 무사히 빠져나오면 그곳 사람들도 더 이상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였다. 여성들이 인근 마을에 디딜방아를 흠치러 갔다가 성공하여 돌아온 후에는 신명나게 풍물놀이를 하였다. 흠쳐 온 방아는 정월이 지나서 되돌려 준다.

이후 다리로 똑똑 밟아가며 노래하는 지신소리는 ‘나쁜 귀신은 땅속에 꼭꼭 묻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 연행순서

풍물패의 삼채장단을 시작으로 디딜방아 액막이 마당으로 이동하여 둥그렇게 원을 만들며 돌아 감는다.(자진삼채장단으로 넘긴 후 맺음.(그림4))

대표성을 갖는 마을의 여성이 이웃 마을의 디딜방아를 떼러 가자고 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그림5) 삼채장단에 아랫마을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이동하여 날쌔 장정들이 방아다리를 떼서 마을 여자들에게 메어주면 여자들은 방아를 메고 방아소리를 부르며 마을 어귀로 돌아온다. 이때 방아의 주인과 싸움이나 실랑이가 펼쳐진다.-풍물패는 짐대 뒤쪽으로 이동을 한다.(그림6)



▷ 사진



〈디딜방아 액막이 마당으로 이동 모습〉



〈옆 마을의 디딜방아 떼어오는 마을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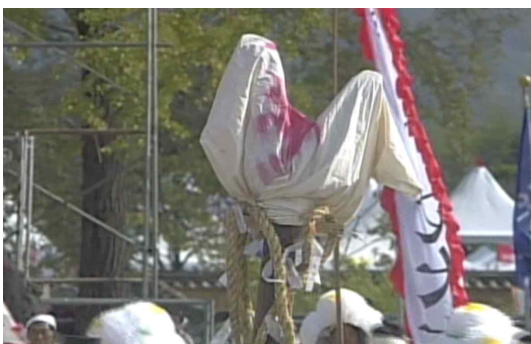
〈디딜방아를 메고 마을로 오는 모습〉



〈디딜방아 주인하고 실랑이 벌이는 모습〉

방아소리가 끝이 나면 풍물패의 삼채장단에 맞춰 방아를 거꾸로 세우고 피 묻은 여자 속곳을 거꾸로 씌운다.(자진삼채장단으로 넘긴 후 맺는다. - 풍물패는 농악 연주 시 함께 참여하다 주술 소리가 시작되기 전에 기수 앞으로 일렬로 나란히 위치한다.) 여성들은 방아다리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앉아 고개를 숙인 상태로 단골의 주술 소리가 이어진다. 소리가 끝나고 단골은 큰절하고 다른 여성들은 허리만 숙여 절을 두 번 한다.(그림7)

▷ 사진



〈디딜방아와 피묻은 속곳〉



〈디딜방아를 세운 후 고사 지내는 모습〉



〈디딜방아 고사 지낸 후 절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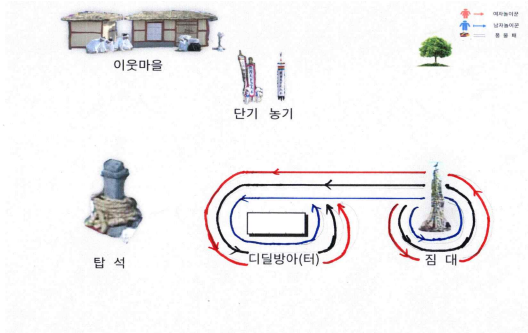


〈디딜방아 세운 후 신명나게 노는 마을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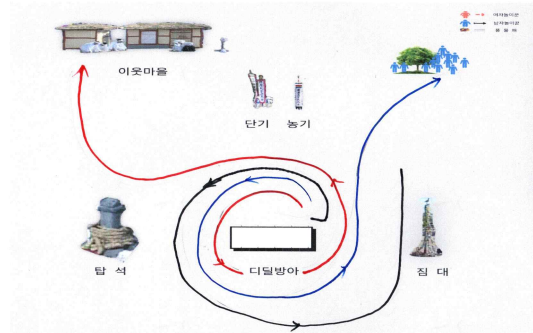
풍물패의 삼채장단에 맞춰서 흥겹게 놀다(밖에 나가 있던 마을 남자들이 결합한다.) 상쇠의 자진모리 신호가락(2장단)에 맞춰 지신소리가 시작된다.(받는소리를 하는 부분에는 장단에 맞춰 크게 땅을 밟는다.) 이후 풍물패의 삼채장단에 신명나게 놀다 맺으면 탑석 줄감기 마당으로 이어진다.(그림8)

▷ 동선

(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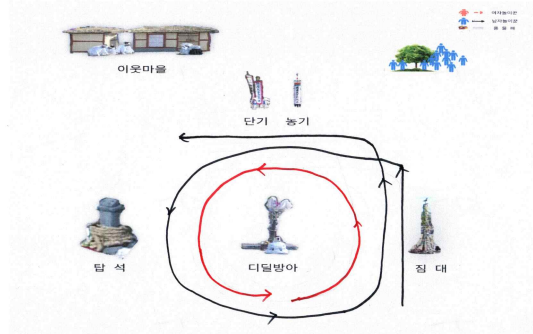
(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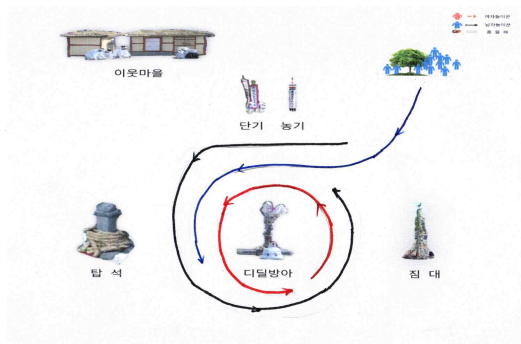
(그림6)



(그림7)



(그림8)



▷ 연주 장단

머리장단

쇠	갠 지	갓 지	갠 지	갓 지
	갠 지	갓 지	갠 지	개 갱
징				
	징			
장구				
	덩	덩	덩 더	궁 딱
북				
	둥	둥	둥 두	둥 딱

기본장단

× ?

쇠	개 갠	개 갠	갠 지개	개 갱
	갠 지개	개 갱	갠 지개	개 갱
징	징			
	징			
장구	더 궁 따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딱 궁 따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자진삼채 넘기는 장단

× 2

쇠	갠 지개	개 갱	갠 지개	개 갱
징	징		징	
장구	덩 더	궁 딱	덩 더	궁 딱
북	둥 두	둥	둥 두	둥

자진삼채(갠지갱)

× ?

쇠	갠 지 갱	갠 지 갱	갠 지 갱	갠 지 갱
---	-------	-------	-------	-------

징	징		징	
장구	덩 더	궁 따 따	궁 딱 구	궁 딱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맺는 신호 장단

쇠	지 갱 갱	지 갱 갱	지 갱	지 갱
---	-------	-------	-----	-----

-노래 반주 장단

.삼채장단

쇠 (머리장단)	갠 지	갯 지	갠 지	갯 지
	개 갱	개 갱	갱	객
기본장단				
	갠 지개	개 갱	갠 지개	개 갱
징	징			
	징			
장구	덩 구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덩 구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메기는 소리에서는 첫 박만 들릴 정도로 작게 연주한다.

사설

-마을 여성대표

여러분~~

-마을 사람

예~~~~

-여성대표

올 해도 우리 마을에 풍년도 들고 액도 막고 질병도 막게 저기 아랫마을 박첨지 네 디딜  
방아를 몰래 살짝 떼어다가 우리 마을 앞에 잘 세워 둥시다.

-마을 사람

네~~~~

-여성 대표

갑시다 ~~

-마을사람

예~~~

\*디딜방아 소리

메기는소리

받는소리

에야 어유와 방애에로다

에야 어유와 방애에로다

이방아가 왜 방아나  
강태공의 주작이로다  
들로 가면 말방아요  
집에 들면 디딜방아  
이 방아를 만들적에  
서른세명 일꾼들이  
낙낙장송 비어다가  
이방아를 만들었네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꼬소름 허구나 깨묵방아  
들로가면 말방아요  
물로가면 물방아요  
혼자짚는 절구방아  
둘이짚는 나락방아

후렴 : 예야 어유와 방애에로다  
오동 목판에 거문고 소리  
줄만 골라도 소리가나고  
오동나무 속에도 곤(고운)소리나고  
예야 어유와 방애에로다.

#### \*고사소리

고사말씀 드립니다. 해우는 경신년이요 달은 잡아들어  
(징)  
조리상원이라 날로잡아 보름날은 정자 미자날입니다.  
영험있는 방아대신 앉아서도 삼천리요 서서도 삼천리요  
이곡(국)만리 주야천리 굽어보는 방아대신 영당에 좌정하고  
모질고도 독한마마귀신 종두안질두창염병 물알로 물리시고  
만복을 누리도록 영험보게 하옵시고 집집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하옵소서  
영험하신 방아대신 비웁니다 비웁니다 손발이 다닿도록 빌고  
빌어 축원하옵니다.  
(절2번)

#### \*지신소리

받는소리:  
지신 지신 지신아 청룡 지신을 올려라

메기는소리:

지신 지신 지신아 청룡 지신을 울려라  
이 터 명당을 둘러보니 명당수법이 장히 좋네  
좌청룡 우백호요 남주작은 복현무  
문필봉이 비쳤으니 대대관작이 날명당  
손심봉이 비쳤으니 자손이 흥성하고  
아들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로세  
소를 낳으면 약될소요 말을 낳으면 용천마  
개를 낳면 청삽사리 닭을 낳으면 봉담일세  
이터명당이 생길적에 지리산정기가 떨어져  
이터명당이 생겼으니 어찌아니가 좋을손가  
지신 지신 지신아 청룡 지신을 울려라

**\*지신밧기소리**

받는소리:

지신지신 지신아 청룡 지신을 울려라

메기는소리:

이터를 딱아내어 효자충신 주출로세  
인의 예지 기동세워 삼당목으로 상냥하고  
팔조목 도리걸고 육십팔괘 베어내어  
개개연목 엮어놓고 오십토로 알매엮고  
태극으로 기와엮고 일월성신에 창호허여  
나귀하마 단청허니 이아니 좋을 손가  
이 터 명당을 둘러보니 명당수법이 장히 좋네  
좌청룡 우백호요 남주작 복현무  
손심봉이 비쳤으니 자손이 흥성하고  
문필봉이 비쳤으니 대대관작이 날명당  
아들낳으면 효자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로세  
소를 낳으면 약될소요 말을 낳으면 용천마  
개를나면 청삽사리 닭을낳으면 봉담일세  
지신 지신 지신아 청룡지신을 울려라

3) 탐석 줄감기 마당

탐석 줄감기 마당은 줄다리기를 마친 이후 마을의 신앙대상물인 탐석에 줄을 감는 마당이다.

(1)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에 줄을 당겨 승부를 겨루던 대동놀이로, 지역에 따라 줄당기기·줄땡기기·줄싸움·줄쌈·계줄쌈·귀줄싸움·동줄다리기라고 부른다. 촌락사회에서 전래하는 마을 단위 혹은 여러 마을 단위의 세시(歲時) 행사로서, 두 편으로 나뉜 집단이 줄을 당겨 승패를 가르는 집단적 놀이 행사를 통해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의례적 성격을 가진 관습이며,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분포하나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줄다리에 사용되는 도구는 두 개의 줄, 즉 암줄과 숫줄 그리고 두 줄을 연결하는 나무인 목나무(비녀목·고·갯목)로 이뤄진다. 줄은 뽕싹으로 만들어지며 목나무는 참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편을 갈라서 하는 줄다리를 통하여 이기는 편에 풍년이 들고 마을이 안녕하다는 믿음은 우리나라 줄다리의 보편적 성격이고, 이는 줄다리기가 기풍(祈豐)과 벽사(辟邪)로서 액막이의 기능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암줄과 숫줄이 가지는 생식기의 상징과 그 둘을 결합하여 당기는 것이 성행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산성의 직접적 의미를 드러내고, 나아가 암줄인 여성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일반적 관념도 여성의 가임성과 직결된 풍요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다.

## (2)탑석(탑제)

### 탑제(塔祭)

탑석은 마을 어귀에 잡석(雜石)을 올려 쌓아 만든 정교한 원뿔대형의 돌탑이다. 돌탑은 돌이 지닌 영구불변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종교 원리를 이용한 신앙대상물이다. 돌이 지닌 주술성을 토대로 하나씩 정성껏 쌓아 올린다.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주민공동체의 발원 속에서 만들어진 원초적 신앙의 산물이다. 돌탑은 원뿔형·원추형·원통형·반원형 등으로 정성스레 쌓는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돌탑은 주민들의 정성으로 정교하게 탄생한다. 원뿔대형이 가장 많다. 돌탑은 마을로 들어오는 액(厄)·질병(疾病)·살(煞)·호환(虎患)·회기(火氣) 등을 막기 위해 쌓은 신앙대상물이지만, 마을 앞의 허한 방위를 막기 위해서나 특정한 모양의 지형을 보완하기 위해 쌓은 단순 비보물(裨補物)이기도 하다. 다른 신앙 대상물에 비해 풍수적인 비보(裨補) 신앙의 모습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다.

탑제는 정월 초사흘이나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돌탑을 신앙대상물로 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의 한 종류로, 지역에 따라서는 탑신제(塔神祭)·조탑제(造塔祭)·거리제·당산제·수살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탑은 장승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앙대상물로 꼽는데, 그동안 서낭당과 동일시되거나 혼동하여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탑과 서낭당은 확연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탑제는 정월 대보름 동제의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면서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탑은 지방에 따라서 조산(造山)·조탑(造塔)·수살·도탑·방사탑(防邪塔)·수구(水口)막이·수구매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운곡마을의 입구에 조탑(造塔)이 있다. 탑의 규모는 하단부의 둘레가 8-9m정도 이고 높이는 2.5m정도 이다. 형태는 돌을 원형으로 쌓아 올리고 상단 중앙에는 남근석을 세웠다. 남근석 상단에 귀뚜라미 생김 돌을 얹어 둔 것이다.

마을에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마을이 알지 못하는 병마와 맹수의 침입으로 인명 피해가 심하였고, 도승에게 물으니 마을 앞에 석탑을 세우라 하였으며, 그 말대로 석탑을 쌓은 후로는 병마와 맹수의 침범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탑은 대체로 마을 어귀의 길 양쪽으로 하나씩 쌓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운곡마을에는 마을 입구의 마을 회관과 정자를 지나 약 100m정도 안길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하나만 있다. 이 탑은 할아버지 탑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할머니 탑은 쌓지 않았거나 논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래전에 소실되었거나 풍수상 허한 쪽에 1기만 세워 지기(地氣)를 비보한 것인지도 모른다. 1950년대까지도 정월 대보름에는 이 탑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농악놀이와 함께 마을의 병해를 막고 행운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탑굿과 당굿을 하였다고 한다.

운곡마을의 탑석 줄감기 마당은 줄다리기로 시작한다.

암줄은 여자가 숫줄은 남자들이 어깨에 메고 나온다. 이때 '줄메는 얼사소리'를 한다.

줄다리기 장소에 도착하면 줄목을 끼우는 것으로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 암줄의 목줄에 숫줄의 목줄을 끼우고 목나무로 고정시키는 단계는 남녀 성기 삽입을 상징하는 성행위로 보아 음란한 말들이 오가며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진다. 일단 줄목이 끼워지고 신호에 따라 줄당기기가 시작되면 풍물패와 양편 주민의 응원이 어우러져 한바탕 굿이 벌어진다. 대개 서편(여성편), 즉 암줄을 당기는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이기게 된다. 이는 주변에 둘러 서 있던 아이들이 부정(父情)보다는 모정(母情)이 강하기 때문에 암줄 편에 달라붙어 줄을 당긴다. 그리하여 암줄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는 남근석에 줄을 감는 행위의 주체자가 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근석에 줄을 감게 되는데 숫줄을 먼저 아래에서부터 감고 그 위에 암줄을 돌린다. 이는 남근석의 상단에 암줄이 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남자의 성기가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신비한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며, 자손의 번성과 종족 보존을 비롯하여 풍부한 생산력을 기원하는 것이다. 또한 마을의 풍기순화(風氣醇化)를 위하여 음란을 막고 조신(操身)을 표현한 것이다.

#### ■ 연행순서

마을 대표의 명령에 따라 미리 준비해둔 줄을 가지러 간다. 여자는 암줄, 남자는 숫줄을 메고 출발 준비를 한다.(풍물패는 삼채장단으로 마당을 크게 돌아 마당 앞을 보고 나란히 선다. 이후 줄을 메고 있는 사람들의 출발 준비가 끝나면 자진삼채장단으로 맺음.(그림9))

나발의 신호가 끝나면 '줄메는 얼사소리'를 하며 출발한다.

암줄은 신부가, 숫줄에는 신랑이 동행하여 인솔한다. 이후 마당의 한가운데에서 암줄과 숫줄이 마주보게 되면 노래가 마무리되고 풍물패의 삼채장단으로 이어진다.(풍물패가 시작할 때 줄을 위아래로 크게 4~5회 오르내린 후 상호 교차하여 자리를 바꾸며 이동한다.(그림10))



▷ 사진



〈암줄 메고오는 마을 여자들1〉



〈암줄 메고오는 마을 여자들2〉



〈숫줄 메고오는 마을 남자들〉



〈암줄, 숫줄 이동 동선1〉



〈암줄, 숫줄 이동 동선2〉



〈암줄과 숫줄이 교차하는 모습〉

두 줄은 다시 돌아와서 마주하게 되면 크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흥을 돋운다. 풍물패의 맺는 장단과 동시에 크게 징이 한번 울린다. 징소리에 줄을 마당에 내려놓고 암줄과 숫줄에 목줄을 끼워 넣으려 할 때 익살스러운 장면이 연출된다.(풍물패는 일채장단으로 어우르다 삼채장단으로 바뀌서 연주한다.)

풍물패의 삼채장단이 징소리와 함께 마무리되면 ‘자~~ 우리 합궁합시다.’라는 소리와 더불어 ‘합궁이요’라는 소리가 나오면 신랑 신부의 큰 절이 1회 이루어진다. 이후 암줄의 줄목에 숫줄의 줄목을 넣은 후 비녀목을 끼우고 나면 흥겹게 삼채장단에 논다.

▷ 사진



〈암줄, 숫줄이 만나는 장면〉



〈암줄에 숫줄을 끼우려 하는 익살스런 모습〉



〈비녀목에 끼워진 숫줄과 암줄〉



〈암줄, 숫줄의 합궁 장면〉

징 소리를 시작으로 줄다리가 시작되면 처음엔 숫줄로 가다 암줄로 이동하여 여성들이 승리하게 된다. 암줄이 승리하게 되면 여자들은 한바탕 놀고 숫줄은 바닥을 치며 아우성을 한다.(풍물패의 삼채장단을 연주한다.)

▷ 사진



〈줄다리기 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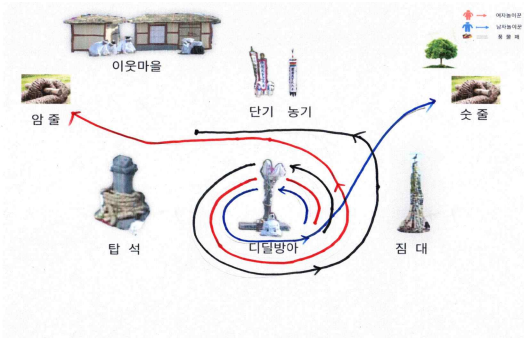
〈줄다리기 이후 신나게 노는 마을 사람〉

이제 줄을 메고 탑석으로 이동하여 줄감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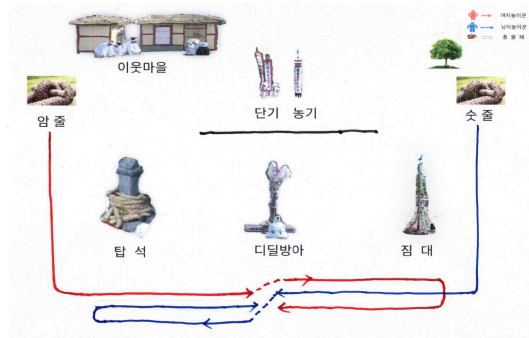
숫줄의 목줄을 아래로 탑석에 반시계 방향으로 감고, 암줄도 목줄을 아래로 하고 시계 방향으로 감아서 탑석의 윗부분과 닿게 한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모두 한바탕 놓고 절을 3회 한다.(삼채-넘기는 장단-자진 삼채(그림11))

▷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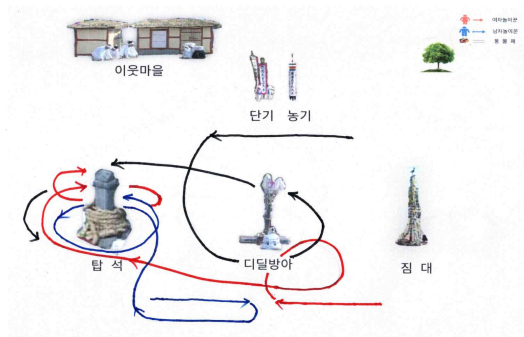
(그림9)



(그림10)



(그림11)



■ 연주 장단

머리장단

쇠	갠 지	갓 지	갠 지	갓 지
	갠 지	갓 지	갠 지	개 갱
징	징			
장구	덩	덩	덩 더	궁 딱
북	둥	둥	둥 두	둥 딱

기본장단

× ?

쇠	개 갠	개 갠	갠 지개	개 갱
	갠 지개	개 갱	갠 지개	개 갱

징	징			
	징			
장구	더 궁 따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딱 궁 따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자진삼채 넘기는 장단 × 2

쇠	갠 지개	개 갠	갠 지개	개 갠
징	징		징	
장구	덩 더	궁 딱	덩 더	궁 딱
북	둥 두	둥	둥 두	둥

자진 삼채(갠지갱) × ?

쇠	갠 지 갠	갠 지 갠	갠 지 갠	갠 지 갠
징	징		징	
장구	덩 더	궁 따 따	궁 딱 구	궁 딱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맺는 신호 장단

쇠	지 갠 갠	지 갠 갠	지 갠	지 갠
---	-------	-------	-----	-----

-노래 반주 장단

자진모리 장단

쇠 (머리장단)	갠 지	갯 지	갠 지	갯 지
	개 갠	개 갠	갱	객
기본장단	갠 지개	개 갠	갠 지개	개 갠
징	징			
	징			
장구	덩 궁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덩 궁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메기는 소리에서는 첫박 만 들릴 정도로 작게 연주한다.

사설)

-마을 대표

여러분~~~

-마을 사람

예~~~  
-마을 대표  
입석 줄감기 줄다리러 갑시다.  
-마을 사람  
예~~~~

노래)

### 줄메는 열사소리

\*받는소리: 열싸 덜이덜렁

\*메기는소리:

열싸      덜이덜렁  
우리군사 이기며는  
사발광대 시켜줍세  
열싸      덜이덜렁  
하늘에는 별이총총  
대밭에는 대도총총  
집시락에 새새끼놀고  
꾸정물통에 호박씨뒸네  
열싸      덜이덜렁  
고맙고도 고맙더라  
김침지네 아줌마가  
술과밥을 많이줘소  
우리군사 잘도허네

우리군사 잘도허네  
솔밭에는 쟁이도총총  
대밭에는 마디도총총  
하늘에는 별도총총  
꽃밭에는 꽃이총총  
집시락에 새새끼놀고  
김침지네 살림살이  
말도많고 탈도많다  
항상봐도 좀도좋네  
가세가세 어서가세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달이돈네 달이돈네  
비계머리 달이돈네  
달밝고 꽃피는밤  
놀다가도 무간이네  
녹양방초 저문날에  
님만나서 놀고가세

#### 4) 뒷풀이 마당(액막이 소리)

액막이 소리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닥치는 액운을 미리 막기 위하여 행하는 민속제의에서 불린다. 인간의 생활공간에서 수시로 찾아드는 재액을 막아 풍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민간의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액막이 소리는 신앙의식요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속신의식요의 한 종류로 주술성을 띤 노래이다. ‘액풀이요’, ‘액풀이노래’, ‘액풀이타령’이라고 일컬어진다. 흔히 불리는 노래는 달거리의 연장체 형식인데, 판소리 사설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연원이 오래된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무당의 액막이굿에서 불리는 형식의 주술성이 강한 노래도 있다.

운곡마을에서 부르는 액막이 소리는 탑석에 줄을 감고 난 후, 마당 가운데로 이동하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데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위를 지키는 오방신장(五方神將)이 액을 막아준다는 내용이다. 신장들은 각 방위에 해당하는 색깔에 따라 나열되는데, 이는 동양의 오행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 ■ 연행순서

풍물패의 삼채장단에 맞춰 마당의 중앙으로 이동하면, 자진모리장단에 맞춰서 액막이 소리를 부른다. 이후 노래가 끝나면 삼채장단, 자진삼채장단, 이채장단으로 풍물굿이 맺는다. 인사굿으로 모든 마당이 마치게 된다.(그림12)

#### ▷ 사진



〈탑석에 줄감는 모습1〉



〈탑석에 줄감는 모습2〉



〈탑석에 줄감고 노는 모습1〉



〈탑석에 줄감고 노는 모습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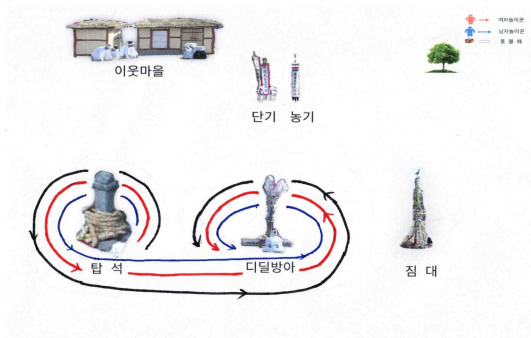


〈탑석에 줄감고 노는 모습3〉



〈탑석에 절하는 모습〉

▷ 동선  
(그림12)



-연주 장단

머리장단

쇠	갠 지	갓 지	갠 지	갓 지
	갠 지	갓 지	갠 지	개 갱
징				
	징			
장구				
	덩	덩	덩 더	궁 딱
북				
	둥	둥	둥 두	둥 딱

기본장단

× ?

쇠	개 갠	개 갠	갠 지개	개 갱
	갠 지개	개 갱	갠 지개	개 갱
징	징			
	징			
장구	더 궁 따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딱 궁 따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자진삼채 넘기는 장단

× 2

쇠	갠 지개	개 갱	갠 지개	개 갱
징	징		징	
장구	덩 더	궁 딱	덩 더	궁 딱
북	둥 두	둥	둥 두	둥

자진 삼채(갠지갱)

× ?

쇠	갠 지 갱	갠 지 갱	갠 지 갱	갠 지 갱
징	징		징	
장구	덩 더	궁 따 따	궁 딱 구	궁 딱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맺는 신호 장단

쇠	지 갱 갱	지 갱 갱	지 갱	지 갱
---	-------	-------	-----	-----

-노래 반주 장단

.자진모리 장단



쇠 (머리장단)	갠 지	갯 지	갠 지	갯 지
	개 갡	개 갡	갡	갡
기본장단				
	갠 지개	개 갡	갠 지개	개 갡
징	징			
	징			
장구	덩 구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덩 구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메기는 소리에서는 첫박 만 들릴 정도로 작게 연주한다.

### ■ 노래 사설

#### 액막이소리

\*받는소리 : 에 에루 액이야 에라 중천 액이로구나

\*메기는소리 :

- 1.동에는 청제장군 청말위 청안장 청갑을 쓰고 청갑옷입고 청활화살을 손에다 들고 동방에 떨어져서 대기수살을 막어내세.
- 2.서에는 백제장군 백말위 백안장 백갑을 쓰고 백갑옷 입고 백활화살을 손에다 들고 서방에 떨어져서 대기수살을 막어내세.
- 3.남에는 적제장군 적말위 적안장 적갑을 쓰고 적갑옷 입고 적활화살을 손에다 들고 남방에 떨어져서 대기수살을 막어내세.
- 4.북에는 흑제장군 흑말위 흑안장 흑갑을 쓰고 흑갑옷 입고 흑활화살을 손에다 들고 북방에 떨어져서 대기수살을 막어내세.
- 5.중앙은 황제장군 황말위 황안장 황갑을 쓰고 황갑옷 입고 황활화살을 손에다 들고 중앙에 떨어져서 대기수살을 막어내세.

## 5. 연구와 재현을 통한 이용가치와 활용 및 전승 방안

순천지역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전남 동부지역의 중심이다. 전통문화예술 또한 자연스럽게 성장, 발달하여 온 것이다. 순천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예술 성과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과정과 활동이 이제는 필요하다 본다.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의 정리 및 재현을 목적으로 시작한 본 작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문화예술에 변화를 가져오리라 보며, 향토 민속예술로서 성장·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향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① 가치 있는 향토 민속예술 발굴 및 복원과 재현으로 보존과 전승의 발판 마련

순천시 상사면 운곡마을에서 연행된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은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집체적 향토 민속예술이다. 2000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예술성과 작품성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유산임을 인정받았다. 과거 정월 대보름에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연행되어 진 각 마을의 다양한 절차와 의례를 한눈에 보여주는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은 우리 지역의 과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복원과 보존과 전승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② 전통문화예술 종사자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대표 콘텐츠 제작

순천지역은 전남 동부권의 지리적 문화적 중심도시이다. 순천만 국가정원, 낙안읍성과 민속 마을, 송광사, 선암사를 비롯한 수많은 지리 역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 관광 자원으로 성장시켜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지역의 예술가와 다양한 협업으로 재현과 연행이 되어 순천의 전통민속예술의 집체적 신명을 순천만 국가정원과 낙안 민속 마을을 비롯하여 전국에 알려내는 순천의 대표 민속 예술 콘텐츠로 제작, 성장,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의 전통예술인과 더불어 행정관계자, 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 ③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의 집단적 민속놀이로 성장

다변화와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마냥 바쁜 현실 속에서 정말 소중한거나 가치 있는 것을 잇은 채 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공동체 의식이다.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은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즉흥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적 신명을 모색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콘텐츠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와 향토민속예술이 소통 구조를 가지며 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기성 전통예술인들은 건강한 민속예술 작품 복원하고 시대적 감각에 맞게 전승 구조를 찾아내고, 시당국에서는 지역 민속예술의 질적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대중 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④ 학교와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향토 민속예술의 향유자로 성장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은 서사성이 진한 예술작품은 아니나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질병

과 재앙을 막기 위한 주술성이 강한 점이 특징이라 참여하는 여행자들과 관객이 동시에 신명을 느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공동체를 기본으로 하는 단위, 즉 각 학교와 지역 예술 및 사회 단체들과의 협조로 교육 및 지도 활동을 통해 완성한 작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훌륭한 민속문화를 접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민속예술에 흥미를 갖게 하면서 놀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향유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참여 단체를 비롯하여 인적자원 간의 네트워크 강화로 문화예술 체인 결성

지방도시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인)의 한계 중 하나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구는 높으나, 완성도 있는 작품에 기량 높은 예술인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나 예술적 성향이나 사회적 관계 등을 묻다 따지다 보면 쉽게 풀릴 일들도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의 현 시대적인 가치, 지역 민속예술로서 가치, 전통민속예술이 지역 사회와 함께 풀어야 하는 명분과 가치를 조명하여 전문예술가와 기획 단체 및 참여자가 공론하며 지역문화와 전통예술을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6. 참고문헌

- 순천시 상사면지 편찬위원회, 「상사면지」(순천:나래기획, 2018)  
승주향리지 편찬위원회, 승주향리지」(순천:광주일보출판국, 1986)  
재순상사향우회, 「상사향토지」(순천:순천사진인쇄공사, 1994)  
순천문화원, 「지명을 찾아서」(순천:아세아기획, 1998)  
최덕원, 「남도민속고」(서울:삼성출판사, 199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편, (서울:국립민속박물관, 2004)

### ▷ 연구자

- 배양순(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이사장)  
추성민(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부이사장)  
전남숙(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이사)  
전수평(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이사)  
김윤설(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이사)  
박재철(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이사)  
배은화(영상 기록)

도움주신 분

유정호, 임숙영(파란드론항공학교)

## 7. 참고 자료

### ▷ 악보

[첫째 마당]

## 달 구 소리

소리 이 낙 훈  
채보 유 경 수

중중모리 ♩. = 53  
<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에 헤 루 달 구 에 헤 루 달 구

3  
풍 년 일 세 풍 년 일 세 에 헤 루 달 구

5  
우리 동네 풍 년 일 세 에 헤 루 달 구

7  
시 집 가 는 저 큰 애 기 에 헤 루 달 구

9  
가 마 속 에 요 강 들 었 네 에 헤 루 달 구

11  
속 옷 속 에 꽃 피 었 네 에 헤 루 달 구

13  
얼 씨 구 나 달 구 야 에 헤 루 달 구

15  
노 다 가 세 노 다 가 세 에 헤 루 달 구

17  
저 달 지 도 록 노 다 가 세 에 헤 루 달 구

자진 모리 ♩ = 102  
 <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에 헤 루 달 구 에 헤 루 달 구

21 잡 었 네 잡 었 어 에 헤 루 달 구

23 청 룡 백 호 를 잡 었 네 에 헤 루 달 구

25 명 당 자 리 를 잡 었 어 에 헤 루 달 구

27 혼 자 가 며 는 토 속 꾀 에 헤 루 달 구

29 둘 이 가 며 는 황 망 객 에 헤 루 달 구

31 서 이 가 며 는 이 꼬 땅 에 헤 루 달 구

33 얼 씨 구 나 달 구 야 에 헤 루 달 구

35 노 다 가 세 노 다 가 세 에 헤 루 달 구

37 저 달 지 도 록 노 다 가 세 에 헤 루 달 구

39 에 헤 루 달 구 에 헤 루 달 구

[둘째 마당]

# 방아소리

소리 김향순  
채보 유경수

자진모리 ♩. = 102

<메기는 소리>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받는 소리>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이 방 — 아 가 — — 웬 방 — — 아 냐

<받>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강 태 — 공 의 — — 조 작 — — 이 로 다

<받>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들 로 — 가 먼 — — 말 방 — — 아 요

<받>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집 에 — 들 면 — — 디 털 — — 방 아

<밤>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이 방 — 아 를 — — 만 들 — — 적 에

<밤>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서 른 — 세 명 — — 일 께 — — 들 이

<밤>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낙 락 — 장 송 — — 비 어 — — 다 가

<밤>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이 방 — 아 를 — — 만 들 — — 었 네

<밤>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아 이 고 — 매 워 — 라 고 추 — — 방 아

<밤>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꼬 소 — 림 히 구 — 나 깨 묵 — 방 아  
 <받>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들 로 — 가 면 — — 말 방 — — 아 요  
 <받>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물 로 — 가 면 — — 물 방 — — 아 요  
 <받>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혼 자 — 쫓 는 — — 절 구 — 방 아  
 <받>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들 이 — 쫓 는 — — 나 락 — 방 아  
 <받>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발>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오 동 — 목 판 — 에 거 문 — 고 소 리

<발>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줄 만 — 골 라 — 도 소 리 가 — 나 고

<발>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오 동 나 무 속 에 — 는 고운 소 리 — 나 고

<발>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메>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발>  
 에 야 — — 어 유 아 방 애 — — 로 다

# 고사소리

소리 서봉례  
채보유경수

[ 고사 말씀 드립니다. 해후는 경신년이요 달은 잡아들어 ]

무장단 ♩ = 110

정

소리 조 리 상 원 이 라 날 로 잡 아 보 름

5 날 은 정 자 미 자 날 입 니 다

7

9 얀 험 있 는 방 아 대 신 앞 아 서 도

11 삼 천 리 요 서 서 도 삼 천 리 요

13 이 국

15 만 리 주 야 천 리 곱 어 보 는 방 아

17 대 신 영 당 에 좌 정 히 고

19 모 질

21 고 도 독 한 마 마 귀 신 종 두 안 질

23 두 창 염 병 물 알 로 물 리 시 고

25

27 만 복 을 누 리 도 록 영 힘 보 게

29 하 읍 시 고 집 집 마 다 웃 음 꽃 이

31 활 짝 피 게 하 읍 소 서

33 영 힘 하 신

35 방 아 대 신 비 읍 니 다 비 읍 니 다

37 손 발 이 다 닳 도 록 빌 고 빌 어

39 축 원 하 읍 니 다

41

[돌째마당]

# 지신소리

소리 김향순  
채보유경수

자진모리 ♩. = 100  
<메기는 소리>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울려라

<받는 소리>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울려라

<메>

이터 명당을 둘러— 보니 명당 수법이 장히 좋네

<받>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울려라

<메>

좌 청 룡— 우 백— 호요 남 주작은 복현 무

<받>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울려라

<메>

문필 봉이— 비췌— 으니 대대관작이 날 명당

<받>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울려라

<메>

손심 봉이— 비췌— 으니 자손이— 흥성하고

<받>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울려라

<메>

아들 낳면— 효자— 낳고 딸을 낳면— 열녀로 세

<받>  
지 신 지 신 지 신 아 — 청 룡 지 신 을 울 려 라

<메>  
소 를 낳 면 — 약 될 — 소 요 말 을 낳 면 — 용 천 마

<받>  
지 신 지 신 지 신 아 — 청 룡 지 신 을 울 려 라

<메>  
개 를 낳 면 — 청 삽 — 사 리 닭 을 낳 면 — 봉 닭 일 세

<받>  
지 신 지 신 지 신 아 — 청 룡 지 신 을 울 려 라

<메>  
이 터 명 당 이 생 길 — 적 에 지 리 산 정 기 가 떨 어 져

<받>  
지 신 지 신 지 신 아 — 청 룡 지 신 을 울 려 라

<메>  
이 터 명 당 이 생 겼 — 으 니 어 찌 아 니 가 좋 을 손 가

<받>  
지 신 지 신 지 신 아 — 청 룡 지 신 을 울 려 라

<메>  
지 신 지 신 지 신 아 — 청 룡 지 신 을 울 려 라

<받>  
지 신 지 신 지 신 아 — 청 룡 지 신 을 울 려 라

<받>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올려 라

<메>  
소를 낳면— 약대— 소요 말을 낳면— 용천 마

<받>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올려 라

<메>  
개를 낳면— 청삽— 사리 닭을 낳면— 봉닭 일세

<받>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올려 라

<메>  
이터 명당이 생길— 적에 지리산 정기가 떨어져

<받>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올려 라

<메>  
이터 명당이 생겼— 으니 어찌 아니가 좋은 손가

<받>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올려 라

<메>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올려 라

<받>  
지신 지신 지신 아— 청 룡 지신을 올려 라

[셋째마당]

## 얼싸 소리

소리 김향순

채보유경수

자진모리 ♩ = 100

<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얼 - 싸 털 이 털 령 얼 - 싸 털 이 털 령  
3 얼 - 싸 털 이 털 령 얼 - 싸 털 이 털 령  
5 우 리 군 사 - 이 기 - 면 은 얼 - 싸 털 이 털 령  
7 사 발 광 대 - 시 켜 - 줌 세 얼 - 싸 털 이 털 령  
9 얼 - 싸 털 이 털 령 얼 - 싸 털 이 털 령  
11 하 늘 에 는 - 별 이 총 총 얼 - 싸 털 이 털 령  
13 대 밭 에 는 - 대 도 - 총 총 얼 - 싸 털 이 털 령  
15 집 시 락 에 - 새 새 끼 늘 고 얼 - 싸 털 이 털 령  
17 꾸 정 물 통 에 - 호 박 씨 뗏 네 얼 - 싸 털 이 털 령  
19 얼 - 싸 털 이 털 령 얼 - 싸 털 이 털 령



<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고  밥  고  도  —  고  밥  더  라  얼  —  싸  덜  이  덜  령

23  
 김  칩  지  네  —  아  줍  —  마  가  얼  —  싸  덜  이  덜  령

25  
 술  과  밥  을  —  많  이  줘  서  얼  —  싸  덜  이  덜  령

27  
 우  리  군  사  —  잘  도  히  네  얼  —  싸  덜  이  덜  령

29  
 우  리  군  사  —  이  기  —  며  는  얼  —  싸  덜  이  덜  령

31  
 사  밭  광  대  —  시  켜  —  줍  세  얼  —  싸  덜  이  덜  령

33  
 하  늘  에  는  —  별  이  총  총  얼  —  싸  덜  이  덜  령

35  
 대  밭  에  는  —  대  도  —  총  총  얼  —  싸  덜  이  덜  령

37  
 얼  —  싸  덜  이  덜  령  얼  —  싸  덜  이  덜  령

[넷째마당]

# 액막이 소리

소리 김향순  
채보유경수

자진모리 ♩ = 100  
<메기는 소리>

에 헤 — 루 액 이 야 — 에 — 라 중 천 액 이 로 구 나

3 <받는 소리>  
— — — — 에 헤 — 루 액 이 야 —

5  
에 — 라 중 천 액 이 로 구 나 — — — —

<메>  
동 해 는 — — 청 제 — — 장 군

9  
청 — 말 위 — 청 안 장 청 감 을 쓰 고 — 청 감 옷 입 고 —

11  
청 활 — 화 살 을 손 에 다 들 고 동 방 에 떨 어 저 서

13 <받>  
대 기 수 살 을 막 어 — 내 세 에 헤 — 루 액 이 야 —

15  
에 — 라 중 — 천 액 이 로 구 나 — — — —

<메>  
서 해 는 — — 백 제 — — 장 군

19  
백 — 말 위 — 백 안 장 백 감 을 쓰 고 — 백 감 옷 입 고 —

21 백 활 — 화 살 을 손 에 다 들 고 서 방 에 떨 어 저 서

23 <받> 대 기 수 살 을 막 어 — 내 세 에 헤 — 루 액 이 야 —

25 에 — 라 중 천 액 이 로 구 나 — — —

<메> 남 해 는 — — 적 제 — — — 장 군

29 적 — 말 위 — 적 안 장 적 갑 을 쓰 고 — 적 갑 옷 입 고 —

31 적 활 — 화 살 을 손 에 다 들 고 남 방 에 떨 어 저 서

33 <받> 대 기 수 살 을 막 아 — 내 세 에 헤 — 루 액 이 야 —

35 에 — 라 중 천 액 이 로 구 나 — — —

<메> 북 에 는 — — 흑 제 — — — 장 군

39 흑 — 말 위 — 흑 안 장 흑 갑 을 쓰 고 — 흑 갑 옷 입 고 —

41    
 흑 활 — 화 살 을 손 에 다 들 고 북 방 에 떨 어 저 서

43    
 <받>   
 대 기 수 살 을 막 어 — 내 세 에 헤 — 루 액 이 야 —

45    
 에 — 라 증 천 액 이 로 구 나 — — —

   
 <메>   
 증 앙 은 — — 황 제 — — — 장 군

49    
 황 — 말 위 — 황 안 장 황 갑 을 쓰 고 — 황 갑 옷 입 고 — —

51    
 황 활 — 화 살 을 손 에 다 들 고 증 앙 에 떨 어 저 서

53    
 <받>   
 대 기 수 살 을 막 아 — 내 세 에 헤 — 루 액 이 야 —

55    
 에 — 라 증 천 액 이 로 구 나 — — —

## 8. 출연진 의상 및 깃발



여성의상(검정치마)



여성의상(빨간치마)



마을사람(남자의상)



신랑의상



신부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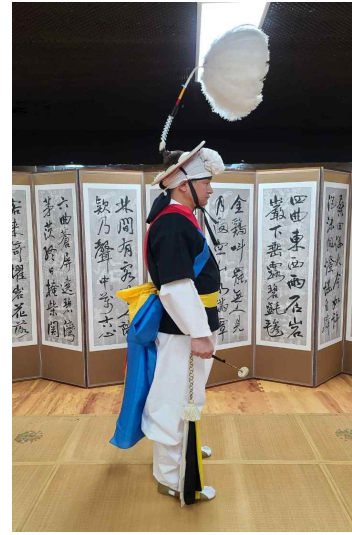
풍물패 깃발(단기, 농기)



풍물패 상쇠 전면



풍물패 상쇠 후면



풍물패 상쇠 측면



풍물패 전면(징,장구,북)



풍물패 후면(징,장구,북)

## 9. 순천 운곡마을 전경



운곡마을 전경



운곡마을 입구



운곡마을 당산나무(숫당산, 암당산)



운곡마을 탑석(남근석)



운곡마을 우물(웃돔)



운곡마을 우물(중돔)



운곡마을 우물(구석돔)

# 10. 2000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 홍보 및 안내 자료

## ▷ 대회 팸플렛



### 인사말씀



전라남도지사  
허경만

전통문화예술의 판이할 필요적인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우리도 순천시 은곡마을에서 원래되어 왔던 「대보름 액막이굿」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전남은 산이 좋고 물이 맑은 뿐만 아니라, 기품진 땅과 아름다운 섬들이 조화를 이루어 축복받은 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산물이 풍부하여 인심이 후덕하고, 풍류가무를 즐기는 전통이 만민의 이리저 예향의 고장이라 불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과 정서를 토대로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배출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도처에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우리의 전통예술은 그 자체가 선조들의 생활이었고 그 안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형 예술은 한 번 소실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소개해 올린 「순천시 은곡 대보름 액막이굿」 역시, 우리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중의 하나로써 그동안 심혈을 기울이며 원류를 찾아 마침내 원형을 재현해 낼 것입니다.

그간 각고의 노력으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오신 출연진 여러분이 노고와 한국전통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이바지하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이 지면을 통해 기획연출과 고증을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 10. 24

### 은곡대보름 액막이굿

순천시 은곡마을의 「대보름 액막이굿」은 풍요를 기원하고 질병과 재앙을 막기 위한 집단의 주술적인 마을축제 것이다.

정월대보름 아침절에 마을 공터에서 나뭇잎을 벌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동구 앞 길목에 짐대를 세우고 밤이되면 부녀자들이 마을 정장을 앞세워 이웃 마을 디달방아를 훑쳐와서 벌어진 밤이 다리에 과부의 활경(피)뽕은 속곳을 입혀 동구 앞 길목에 세워 돌림병과 살귀의 침입을 막게한다 그리고 남자가 판을 갈라 솟줄과 암줄을 이어 줄다리기를 하고 나면 탐들(선들)에 줄을 감아 풍요를 기원한다

은곡마을 액막이 굿은 일년농사가 풍요롭게 되고 재년이 없기를 기원하는 발원성이 강한 집단적 제의와 유감, 주술적인 놀이가 복합된 마을 굿으로 유일하게 그 원질성을 보여주고 있어 그의 보존과 전승이 요망된다.

### 굿의 순서

고종: 정동준  
기획연출: 김향순

1. 짐대 세우기(다구소리)
2. 디달방아액막이(방아소리) (지신밧기소리)
3. 탐들이 돌림기(달령소리)
4. 뒷들이(액막이 소리)

### 굿의 순서

#### 첫째,

#### 짐대세우기이다 (다구질 소리)



마을 앞 동구에 짐대(솟대)를 세워 마을의 안녕과 수호 그리고 풍요를 기원한다.

#### 둘째,

#### 디달방아미다 (방아소리 · 지신소리)



이웃 마을에서 훑쳐 온 밤이 다리를 마을 앞 길목에 거꾸로 세워 물고 갈라진 방앗다리에 과부의 활경(피)뽕은 속곳을 걸쳐 돌림병을 막아하는 고사를 올린다.



세째.



**탕석 들감기미다**  
(말사소리)

보름날 만큼 손줄르 낱타를 권을 길라 줄달이기를 한 후 탕석(입석)에 줄을 감아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다.

네째.



**뒷푼이미다**  
(액막이 소리)

풍물과 액막이 소리에 맞추어 주민전세가 참여하는 흥겨운 춤제미당이 펼쳐진다.

**다구소리**

후렴  
예헤로 달구

말소리  
예헤로 달구  
일락서상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경에 달이 솟네  
월맞 들었다 텅텅농새  
시집가는 지편애기  
가마속에 요강드릿네  
속곳속에 꽃피웠네  
일시구나 다구야  
일시구나 다구야  
피담분단 쓰리꼴까  
동자신달 실한동애  
백설이 내린다고  
남의생가 변할손가  
흔취추동 사시절애  
황소불안이 달릴덜렁  
일시구나 달구야



월시구나 달구야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월이 지느냐  
남파리고 기진넌은  
가고싶어 가느냐  
일시구나 달구야  
월시구나 달구야

**미안소리**

후렴  
여야 어유와 병애로다

말소리  
이방이가 켜 병이나  
강태공의 조라이로다  
상사목으로 만들방야  
받로딘고 손으로 당겨  
이방이를 쫓어보세  
오리랑 내리랑 잘 쫓는다  
들르가면 말방야요  
개울기면 물방야요  
홍년들면 죽방야요  
흰머리면 풍년방야  
흔자형은 절구방야  
절기좋은 나라방야  
저고지곳이 브리방야  
사방사방 율리방야



**지신밟기소리**

후렴  
지신지신 지신야 청풍 지신을 울리라

이더를 띠어내어 효자충신 주충근세  
인이 래지 기동세희 상강목으로 상냥하고  
팔조둑 도리길고 옥심팔래 배어내어  
개개연목 앞어놓고 오심토로 앞매였고  
태극으로 기화였고 일월성신에 향호하여  
나귀왕야 단정하니 이이니 줄을손가  
이 더 열당을 둘러보니 명당수범이 강희종내  
화왕풍 우백호요 남주악 복원부  
손실봉이 비웠으니 자손이 풍성하고  
문필봉이 비웠으니 대대관좌이 남명당  
아름답으면 효자놓고 마를 날으면 열녀놓고  
개롱날면 절삼사리 닭용낭으면 봉뉘일세  
소를 날으면 학원소요 말을 날으면 요천말  
지신 지신 지신야 청풍지신을 울리라



**액막이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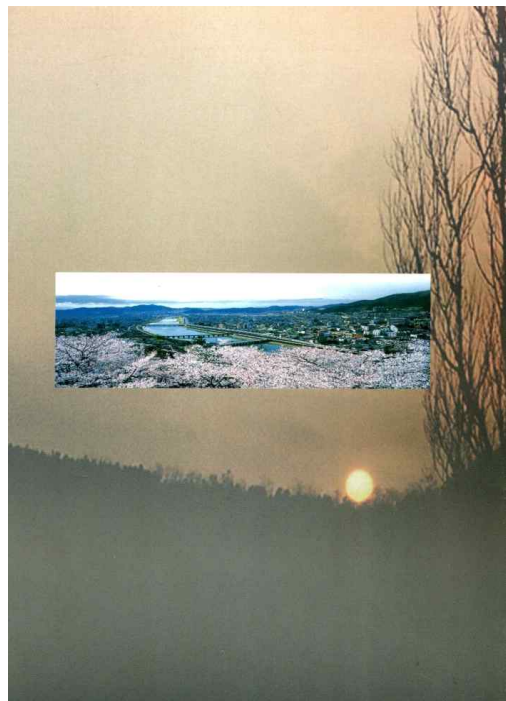
말소리  
예 예루 액이야 예라 중원 액이요구나

- 말소리  
1. 동에는 황제장군 황말위 황안장  
황갑을 쓰고 황갑옷 입고 황황화살을  
손에다 들고 동방에 퍼러져서 대기  
수살을 먹어내세
2. 남에는 직계장군 직말위 직안장  
직갑을 쓰고 직갑옷 입고 직황화살을  
손에다 들고 남방에 퍼러져서 대기  
수살을 먹어내세
3. 서에는 백제장군 백말위 백안장  
백갑을 쓰고 백갑옷 입고 백황화살을  
손에다 들고 서방에 퍼러져서 대기  
수살을 먹어내세
4. 북에는 흉계장군 흉말위 흉안장  
흉갑을 쓰고 흉갑옷 입고 흉황화살을  
손에다 들고 동방에 퍼러져서 대기  
수살을 먹어내세
5. 중앙은 황제장군 황말위 황안장  
황갑을 쓰고 황갑옷 입고 황황화살을  
손에다 들고 중앙에 퍼러져서 대기  
수살을 먹어내세

**죽매는 말사소리**

후렴  
아릴사 달이덜렁

말소리  
우리군사 갈도하네  
솔밭에는 썩이도충충  
대밭에는 마디도충충  
하늘에는 별도충충  
꽃밭에는 꽃이충충  
집사리에 새새기충충  
김질지네 살림사리  
말도말고 달도말다  
황장피도 흥도흥해  
가세가세 이사가세  
달이달아 말은달아  
이태백이 돌던달아  
달이돌네 달이돌네  
미개미리 달이돌네  
달고 달고 활리는말  
놀다가도 무간이네  
죽양방초 지문남애  
닐만나서 놀고가세  
아릴사 달이덜렁



## 출연 종목 해설서 (2000년 한국민속예술축제)

### 순천시 운곡 대보름 액막이 디딜방아

순천시 상사면 운곡(금실)마을의 대보름 액막이굿은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질병과 재앙을 막기 위한 주술적인 마을 축제굿이다.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언젠가부터 돌탑(선돌)에 마을 사람들이 대보름이면 제를 올렸다고 한다.

타 지역의 돌탑의 제와 달리 금실마을의 의식은 마을에 음(陰)이 양(陽)보다 강하여 그음(陰)을 약하게 하는 뜻의 목적으로 해마다 제를 드렸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 땅에는 이질 장티푸스 천연두가 풍토병처럼 돌아다녔지만 지금에 콜레라라고 하는 질병은 없었다고 한다. 개항 후인 고종16년 6월에 일본에서 부산 지방을 통해 콜레라라고 하는 병명이 전국적으로 성행되자 이병이 곧 호열자라는 병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당시 금실마을에 살고 계신 故(고)최씨 할머니라는 분이 액을 막기 위하여 대보름 액막이를 시행. 정월14일 밤 마을풍물패가 큰 샘에서 우물굿을 친후 마을 앞 동구에 짐대를 세워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밤이 되면 부인네들이 한데모여 이웃마을 디딜방아를 훑치러간다.

디딜방아가 있는 마을에서는 방앗집 주인과 마을사람들이 과수를 보지만 날썰 금실마을 장정들이 급습을 하여 싸움이 벌어지는 틈을 타서 부인네들은 디딜방아를 메고 다구질 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돌아와 촌전에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워 문고 벌어진 다리에 과부의 피 묻은 속옷을 입혀 등근 화상을 그려 놓는다. 그리고 제사를 차려 마을무녀가 징을 울리며 모든 액살과 액귀를 막아주도록 방앗신에게 고사떡담을 축원한다.

故(고) 최씨 할머니라는 분이 故(고) 정씨 할머니께 전수를 하여 그 맥을 이어오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지금에 정동준 씨가 故(고)정씨 할머니께 고증을 받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 2000년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사진



참가자 단체사진



수상사진(정동준회장, 김향순선생)



수상 상장

## 11. 2022년도 순천 문화자원 콘텐츠 발굴지원사업 진행 모습



회의 진행 모습



김향순선생님 인터뷰 모습



김현진 멘토와의 진행 모습



운곡 액막이 소리 녹음 작업



정동준회장, 윤기중고문 인터뷰 모습

## 12. 순천 운곡 액막이 대보름굿 인터뷰1

주제 : 순천운곡액막이대보름굿의 과거와 현재

대상 : 정동준(순천 운곡액막이대보름굿 보존회 회장)

윤기중(순천시 국악협회 고문)

일시 : 2022년 09월 01일(목) 17시

장소 : 월계당 한약국

참가자 : 배양순, 추성민, 전남숙, 김윤설



정동준(순천운곡액막이대보름굿 보존회 회장)    윤기중(한국국악협회 순천지부 고문)

(윤기중)

칠곡에 사는 저 박귀희 열아홉 살 때 판소리 배우겠다고 와서 선생님 오디션 본다고 왔는데 딱 들어보더니 오태석씨가 판소리 하지 말고 너 가야금 병창해! 그래서 만든 것이 세계적 명인을 만들었어.

(윤기중)

그런 분이 세상에 그런 분이 낙안서 태어나고 낙안에서 살았는데 순천시에서 그런 양반 전수관 하나 만들지를 못해. 이게 지금 박귀희 씨 제자들이 전국 가야금 병창을 전부 휩쓸고 있잖아. 수 놓고 있어 여기저기서 꽃피고 있어. 그런데 그 꽃의 근본 바탕이 순천이라는 걸! 못 내보내고 있는 순천이 이게 이게 순천인가 문화 자랑하는.

(전남숙)

한 번 모시고 시장님 면담하러 가지죠!

(윤기중)

송만갑 씨가 이미 구례로 가져갔소, 잉! 근데 분명히 그분 자서전에 보는 보면 나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거기서 소년 시절을 보내었소이다. 보내었소이다. 그랬어요.

동네 친구들은 천자문이나 동문선습을 가슴에 끼고 관 쓴 훈장 집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소리를 좋아 한다고 동네 사는 박만순이라는 어른을 찾아가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쌍놈들은요 공부해야 소용없으니까 하지 말고 너는 노래나 해! 그럴 때야. 시절이 해야 소용없어.

(윤기중)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노래나 해서 벌어 먹고 살아. 그래서 박만순 어른한테 가서 공부했다는 그 내용을 볼 때. 와~~ 그 시절이 보여, 얼마나 서러우면 그것을 자기 자서전에다 그렇게 썼겠어. 마지막이다. 그랬어. 뭐 훗 날 내가 죽어 버들 방치 나무 밑에, 버들나무 밑에 방치나무 밑에 내 무덤이 보이거든 지나가시다가 내 무덤을 보시거든 시절을 잘못 만나 태어난 명창 송만갑이가 저기 누워 있구나 라고 하시던지, 더 뜻이 있다면 차고 가던 술병을 따라서 한 잔 부어주시면 지하에 있는 내가 얼마나 좋으리까? 그 말이야.

너무너무 서러워 내가 죽으면 무덤도 없을거이다. 흔적도 없을 것이라고 예견을 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무덤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네

(전남숙)

그때 당시에 신분이 굉장히 낮았나 봐요.

(윤기중)

판서들은 비서나 임금 한 번 독대를 하려면 엄청 어렵거든 몇칠 몇날부터 예약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양반은 이 예약이 필요 없어 필요한 대로야.

(정동준)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게 예술이야!

(윤기중)

그래서 예술. 나는 문화와 예술은 힘이다. 국력이다.

(전남숙)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리골남도에서 이제 만들어 봐야죠. 그 누구도 손 놓고 있는 걸 이제.

(정동준)

그걸 얘기를 해줄게. 순천이 승주군하고 순천시하고 갈라졌어. 여기 끝에 제일 처음에 순천이 순천시는 순천 이걸로 됐어요.

(정동준)

그랬는데 승주군에서 이 문화재 사업을 나간 데가 있어. 근데 월등의 달집 태우기 그거 전국대회에 가서 문화부장관상을 받아. 그것은 승주군에서 바로 문화재를 만들어 주암 물보기굿 그것도 승주군으로 나갔어. 물보기굿도 역시 장관상 받았어. 자기들은 국무총리상 받았다 하지만 장관상도 못 받아. 그런데 그거 또 문화재를 만들어 승주군에서 근데 순천시에는 정말로 나가 이거 대통령상을 받았어. 낙안에 이제 백중놀이 그걸 국무총리상을 받았어.

낙안의 백중놀이도 필시 없어져 버렸어. 이것도 나가 제일 처음에 전라남도로 신청을 했어. 문화재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어느 정도 됐었던지 노인이 진정서를 냈어. 문

제는 진정서 내면 절대 안 되거든 진정서를 내 갖고 도에서 나를 좀 올라오라 한게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김씨가 쪽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빠꾸되고 순천시에서 관심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윤기중)

방해 공작도 아무 소용 없어 순천시에서 정리만 해서 돼요.

(전남숙)

그렇죠 중요한 건 순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었으면 진작에 만들었을 텐데!

(정동준)

그래서 그때 아까 말한 고수대회도 나가 저 그냥 막 했을 때 순천 시장상 놓고 근데 바로 나가 7월달에 임기 받고 10월에 했어. 그 대회를 그러면서 내가 도로 올라가서 도에 가서 도지사상 꺼내고 도 자금 그때 오백만 원인가 얼마를 꺼내. 그래 갖고 그래서 쪽 보면서 차츰 차츰 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상까지 내려고, 내가 대통령상을 놓고 대회를 두 번이나 세 번 했다. 그리고 내가 물려줬어. 물려 줬는데 그 물려진 상 자체조차 지들이 서로 잘한다고 현 바람에 없어져. 그리고 나가 다시 떠들어갔고.

(윤기중)

에메 이것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는 문화재로 돼 있는 것들.

(정동준)

웬만한 여기 갖고 있는.

(윤기중)

해서 그대로 원칙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문제는 얼만큼 기술적으로 짜 맞추느냐 이게 문제요. 요령이요.

(정동준)

하튼 시장을 내 마음대로 주물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면 해도~ 그렇게는 안 돼. 그러고는 .

(윤기중)

아. 그만 내두고 아까.

(배양순)

예예. 액막이.

(윤기중)

액막이를 두드려 이를 어떻게 이것을 나도 참 안타깝더라. 나는 진짜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전남숙)

순천 분 아니세요. 아니요.

(윤기중)

고흥에 있다 왔는데.

(전남숙)

하여튼 오늘 회장님이 윤곡 액막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 낼 거 거든요.

(윤기중)  
제도화해.

(전남숙)  
돌아가셔도 이제 기록이 남을 거고 순천시민 누구나 다 찾아보고.

(정동준)  
상사면지에는 나와 있을 거요.

(전남숙)  
네. 그걸 저희들도 다 찾아봤어요.

(정동준)  
그 봤어

(전남숙)  
네. 다 찾아봤어요. 저희가

(정동준)  
너무 그게 피다니.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야. 그게 이제 즉 말하자면은 어느 때 누군가 그  
걸 했다.  
이것은 없었는지 몰라 분명히. 야 그것은 없을란지 몰라 뭐야 그 그것은.

(정동준)  
그분이 고인이 돼버렸지만은. 거기맹이로 질로 뒤에 탐제를 모셨잖아요.  
그러나 탐제를 제일로 처음에 모셨거든.

(전남숙)  
옛날에는.

(정동준)  
탐제가.

(전남숙)  
가장 먼저였네요.

(정동준)  
탐제를 제일 처음에 모시고 그다음에 디 디딜방아.

(전남숙)  
응. 가져와서 디딜방아 제 모시고.

(정동준)  
요요 오리 짐대는 짐대는 이제 그 무엇을 뜻한 거냐 하면 짐대 우에다 오리를 만들어 꽃  
았거든. 그것은 화재 동네 화재를.

(전남숙)  
막기 위해서.



(정동준)

그 신이고, 그 짐대가 이제 디딜방아는 그때 호열자병. 옛날에 호열자병이라고 했어. 무조건.

(윤기중)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에 코로나 전염병.

(정동준)

그것이 오면 막 죽고 그랬어. 그런데 그것을 막는다. 즉 말하면 액막이 디딜방아를 했던 거고 이제 액막이 디딜방아를 이제 루제(이웃) 마을에 가서.

(정동준)

밤에 돌르면서 거기서 떼 갖고 딱 여자들이 떼고 와서 메면은 찢이 알아도 못 뺐어. 그걸 뺏으면은 그 병균이.

(전남숙)

그 집을 가부러.

(정동준)

주인이 알아도 서랍대기만 들리게 못 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고(매고) 오면은 이제 중간에 동네 청년들이 있다가 이제 받아서 같이 이 동네로 이고 와서 근데 그걸 여자들 뭐야. 속옷을 가랭이 하는 데다가 거꾸로 딱 씌워서 이 씌운(시운) 이유는 이제 얼른 말로 사람이 제일로 싫어한 것이 여자들 피여.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면은 귀신도.

(전남숙)

싫어할 것이다. 물러갈 것 도망갈 것이다.

(정동준)

도망 간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씌어놓고 이제 그다음에 그거 씌운 다음에는 그러니까 질로 처음에는 원고는 저 짐대 짐대를. 즉 말하자면 동네에서 짐대를 처음으로 세워. 짐대를 세운 다음에 이제 거석은 제사는 탐 제사는 보름 날 아침에 새벽에 지내고.

(전남숙)

그러면 짐대는 정월에 세우는 거예요.

(정동준)

그 때는

(전남숙)

보름 그때.

(정동준)

짐대를 세운다 이제 그 짐대를 언제 해 오는 거면. 시안에 시안에 산에 가서 쪼그던 이제 나무 그걸 딱 봐냈다가 인자 정월달에 표시해 가서 비 갖고 메고 온단말이야.

(전남숙)

그 벨 때 그 베로 가는 건 남자들이 가는 거죠! 목욕재계 다 하고 가는 거죠.

(정동준)

거석한 사람은 목욕재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신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인자 그것은 빼버렸지만 그 산신에게.

(배양순)  
이제 당산제 같은 것이 있더라고 원래는 당산제 모신 분들은 원래 이제.

(정동준)  
그러면은 그래 갖고 비 갖고 이제 밀고 내려오는 소리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그 밀고 내려오는 소리가 정말 하면.

(전남숙)  
지금 혹시 기억나세요.

(정동준)  
이거 거석이 책이 전부 다 있제. 미고 내려놓는 소리. 그게 그 소리는 그 미고 내려오는 소리가 모든 힘을 줄 수 있는 소리하지. 흠어지는 소리 이걸 안 돼.

(전남숙)  
에헤루 달구(달구소리). 그거 아니잖아요.

(정동준)  
침대를 미고 올 때 그 소리가 안 돼.

(전남숙)  
그런 소리가 없는 것 같더라.

(정동준)  
그러니까 그것은 안 돼. 그건 흠어지는 소리여. 모든 힘이 아니여. 그야  
위야허~~ 위야허~~. 이것이 모든 소리여.

(정동준)  
그러니까 메고는 이제 그걸로 메고에 내려와서 이제, 동네 이제 딱 그래서 이제  
오리를 만들어서 다 딱 그래갔고 이제.

(전남숙)  
입구에다 마을 입구에다 세우는 거예요.

(정동준)  
입구에다 세우면서 인자 그 세워놓고, 그 위에 오리는 오리는 옛날에 흥년이 들면 죽실을  
먹고 살았어. 사람도 죽실을 먹었어. 지금 말하면 십년이 되면 대밭에 죽실이 열어 풍년이  
되면 열어 지금도 죽실이 열 때가 있어. 지금

(전남숙)  
한 번도 못 보고 꽃은 아니죠. 대나무 꽃.

(정동준)  
꽃이 아니고 열매 나락 같은 열매가 쪽 열어. 그거 그 선암사 같은 데 가서 돼 있잖아.  
그런 데는.

(전남숙)  
열어요. 흥년이 들면 그 죽실이.

(정동준)  
그 죽실을 오리 입에다 꼬자. 그러면 오리가 죽실을 먹고 산다고 그래 갖고 꼬자. 그래서

해놔 그러면 동네 화재를 그게 지금은 뭐 차로 그냥 소방서 이렇게 부를 거지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바가지 이런 거.

(전남숙)  
없는 거죠.

(정동준)  
그러니까 불나면 상당히 고약하지 그래서 동네 화재 같은 거 없애 불고 이제 탑은 탑은 상당히 거세게 그건 동네를 동네 사는 사람 전체를 지켜주는 탑이야 옛날에 지난 산짐승이 많이 있었잖아 네 그 탑이 없었다면 산짐승에 와서 동네 와서 사람을 해쳐

(전남숙)  
보니까 운곡이 참 골짜기던데.

(정동준)  
골짜기인데 사람 살기에 좋아. 이제 그러는데 이 탑을 딱 세워놓은 다음부터는 그런 큰 짐승이 여기 와서 동네서 침범을 못해.

(전남숙)  
우와 신기하네요. 효험이 있네요.

(정동준)  
그래서 그 탑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었어 그랬는데.

(윤기중)  
탑을 보면 두려워했다.

(전남숙)  
자기보다 커서요. 그렇지.

(윤가중)  
생각보다 무서워했다. 아니 동네에 무서워할 것이 없잖아.

(정동준)  
양이 약해 음이 세고 동네가. 그래서 음을 상징하려고 때려서 만들었어요.  
그 탑을 탑을 돌을 이렇게 딱 쌓아서 그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세워서 세워서 두갑을 이렇게 딱 씌웠어.

(전남숙)  
두갑이요. 머리 모양이죠.

(정동준)  
머리 있는데다 이렇게 딱.

(정동준)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자지 같은 이런.

(배양순)  
남근석.

(윤기중)

남자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정동준)

또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동네 절대 그걸 누가 손 대는 사람이 없어 손을 못 대.

(배양순)

신물.

(정동준)

손만 대면 그 사람이 풍진을 맞으게.

(전남숙)

그래요.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정동준)

근데 6.25 때 나순경이라는 사람이 피왕도 가는 거.

이렇게 가까이 한쪽에 떨어져 나갔어. 지금은 떨어져 나가는 쪽이 있어. 그런데 나순경이라는 사람이 해그러네 칼 봉처를 갖고. 그게 다 해놓고 탁 갖고 그냥 탁 질렸어 탁 질렸는데 그럴 적에.

(전남숙)

머리.

(정동준)

머리를 맞고 죽고.

(전남숙)

나 순경.

(정동준)

나 순경.

(전남숙)

순사 이름 몰라 나 시성을 가진 순경이었구나.

(정동준)

응. 그런데 이제 그 사람 그때는 동네 경찰들이 와서 다 밤으로 지키거든. 밤으로 밤으로 경찰들이 반란군들 와서 있스께.

(정동준)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동네 개가 짖어 쏘게. 이제 반란군들은 아 저거 경찰들이 있구나 하고 알고는 그 집 대문이 있어. 대문이 대문 밖에서 딱 좀 버르고있어. 그런데 대문이 되는 게 열어 보도 못하고 이게 대문 옆에 담요 싸논 디로 요렇게 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한 머리 빨리 쪽으로 그냥 빵 좌부렸어

(정동준)

그래갖고 나순경이 머리를 맞고 죽고 그 나순경이 죽으면서 칼빈를 갖고 있어서 총을 쏘다섯 발이 대문을 뚫은 데가 지금도 있어 있어.

(배양순)

지 마음대로 건드렸다가

(정동준)

힘을 안 쓰게 그냥 이렇게 담 옆에가 그 안에 사람이 변소간을 지났어. 그전에는 변소간 갈 수가 없어.

(정동준)

정월에 이제 그거는 것도 안 오고 옛날에 했지. 누가 그걸 안 하고 혼자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 관심이 없는데 신이 있다는 것은 그걸 보고 우리가 느꼈.

(전남숙)

그때 당시요 지금은요 지금도 그 신이 계시는 거죠.

(정동준)

얼마 안 됐지. 그 사람 죽은 지.

(윤기중)

얼마 안 돼.

(정동준)

반란군들 뭐야 한참.

(정동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동네에서는 탑은 있지만 누가 지키지는 안 해도 신은 여기 들어 있고 그냥.

(전남숙)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정동준)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뭐 거석 지면 아까.

(정동준)

거석하려면은 그 모든 문헌의 말 같은 것은 거기서 다 나왔어. 책에 다 나왔어.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고 순서 차별은 우리가 제일로 처음해 액막이 거 뭐냐.

(전남숙)

짐대를 먼저 세우고.

(정동준)

짐대 질로 대을 세웠고 그 다음에 디딜방아를 세우고 디딜방아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남숙)

탑석 감기.

(정동준)

그걸 하면서 줄로 그러니까 줄은 남녀를 갈라 갖고 있어. 그러면 여자 편에서 분명히 이기게 돼. 왜냐 아들 요. 그는 아들이 모정이 더 많아 부정 보다.

그러니까 모정한테로 가 붙어 버려. 아들이 아들이 그래서 애네가 이겨야 됐어. 그리고 그 애네가 이겨야 되고 이제. 이제 그러면 그 탑을 갖다가 이제 아 줄을 갖다가 탑에다가 이제 감아 그렇게 감으면 이제 남자 줄부터 앞에 감고 우에다가 암줄을 감아.

그렇게 이제 감아놓으면 왜 우에다 감느냐 그것도 이제 알아야 돼. 그거는 남자의 거서기

있기 당시 여자 손이 다른 것이 가면은 승해져 늘어나 그래서 위에다 감아.

(전남숙)  
숫줄을 위에다 감는데.

(배양순)  
밑에.

(전남숙)  
아~~ 밑에다 감고 암줄을 위에다 감고.

(배양순)  
그러니까 위에 대가리 쪽으로 암줄이 가게끔 합이 되게끔 합이.

(정동준)  
가차운 데가 위에가 갑잡찬아. 그러니까.

(배양순)  
네.

(정동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서 줄을 그렇게 감는다. 이제 그리고 인자 그래서 이제 제일로 마지막으로 감고 이제 마지막에 그 탐줄을 감은 다음에는 이제 온 동민이 한바탕 뛰고 놀면서 끝을 맺었서.

(전남숙)  
네. 오방 그 액막이 있잖아요.

(정동준)  
그동안 질로 처음에 그거 하면서 많이 싸웠네. 질로 처음에.

(정동준)  
거년에 남도 문화재에서 1등한 팀이 전국 대회를 나가거든요.  
근데 또 질로 처음에 전국대회를 나가라고 연락이 돼서 왔는데 한 며칠 있다가 순천은 금년에 나오지 말고 명년에 나오시오. 왜 그래야! 아무 때고 저기 이제.

(정동준)  
진도 박지원이가 그때 문화부 장관을 문화부 장관 할 때 박지원이가 맞아. 박지원이가 떡진도에 와서.

(윤기중)  
애기를 해놓은 거요.

(정동준)  
전국대회에 나와라. 진도가 나와라.

(전남숙)  
그때 뭐 강강술래 진도가 뭘로 나왔죠?

(정동준)  
그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진도를 보내려고 도에서 딱 한 거야. 그러다가 도로 쫓아 올라

갔어. 도에 가서 담당 직원하고 싸웠어. 왜? 어떤 팀은 그렇게 보내고 어떤 팀은 1년 쉬서 보내고 그거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랬드만은 이제 지그도 생각을 해 본게 그러는 거 아니야. 한 사나흘 있으면 순천서.

(전남숙)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정동준)

그래갖고 순천서 했는데 또 해필 대구 허고 순천 거 맞셨네. 동점이 나와 그래 갖고 이제 선거를 해 선거는 다행히 순천이 한 표가 더 많아.

(전남숙)

저가 그때 20대 때. 그때 같이 이렇게 대회도 같이 나왔고, 그래서 같이 대통령상 받았거든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운곡 액맥이를 다시 이제 할 거예요.

저희들 팀이 배 선생님이랑 소리도 하고 풍물도 하면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연회를 한다든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정동준)

동네는 없어.

(전남숙)

네. 다 연세가 많이 드셔버리고 돌아가셨어요?

(정동준)

돌아가서 불고 동네엔 댕기도 못 한 사람들만 살고.

(전남숙)

지금 몇 분 정도 사시는 거예요. 동네에.

(정동준)

지금 한 30호 남짓 있을거여. 내가 그것도 동네 일볼 때 80호. 농가 비농가까지 전부 다 합해서 80호인데 지금도 한 30호.

(정동준)

중요한 거 그리고 전부 다 늙어갈고. 고굴고굴해.

(배양순)

잠깐만 회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일단 정리할 게 있으니까 저희 중에 필요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마을에서 액맥이 곳을 과거에 실질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정동준)

그렇게 한토록 모아갖고 한 적은 없고.

(배양순)

간단간단하게 군데 군데 집대도 세웠다가.

(정동준)

옛날에 동네분들 매구도 치고 그러잖아.

(배양순)

그러죠. 침대도 세웠다 아침에 와서 침대 세우고 저녁에 되면 디딜방아 액매기도 하고 또 전날 또 당제도 지내고 당산제도 지내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게 혹시나 지금 정확수라도 하나 한 잔 떠놓고 이렇게 빌기도 하고 했던 게 언제쯤이 마지막.

(정동준)  
빌었제.

(배양순)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언제까지 뭐 한 10년 된.

(정동준)  
어렸을 때 때.

(배양순)  
어렸을 때까지 하셨어요..

(배양순)  
아니 80, 80년 전에 하고 못 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대충?

(윤기중)  
팔십 삼세요. 이 양반이.

(윤기중)  
예를 들어서.

(배양순)  
1940년도, 50년도 이때까지?

(정동준)  
우리 초등학교.

(전남숙)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했어요.

(전남숙)  
영상이.

(정동준)  
이거 탑에 잘 올리고 하는 것은 사진 찍었어. 국민학교까지 국민학교 다닐 때.

(전남숙)  
국민학교 때 다니면 연도로 대충?

(정동준)  
그러니까 6.25 직전이지.

(윤기중)  
이게 41년생이니까. 거기서 10년으로 하면 50년대 중반까지 했다는 얘기여. 50년 55년 그 중반까지 했다는 얘기.

(배양순)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끊겼다는 이야기죠. 시대 문명이 바뀌면서 발전하면서 이제.

(윤기중)

끊기면서 이게 자꾸 좀 변해진 거지. 옛날 하는 방법에서 좀 약식으로.

(전남숙)

근거만 있고.

(배양순)

특별하게 뭐 그만둔 이유가 있지는? 마을 분들끼리 싸워갖고 그만하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동준)

옛날에는 소개를 짝 나가버렸잖아. 골짜에 전부 다 동네가 전부 다 소개를 나가버려. 그 래 갖고 그 시안에 가차 오면서 너무 방 얻어서 살아. 글다가 이제 낮에 낮에 인자 들어가. 낮으로 동네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깐닥하다가 반란군들 만나면 잼피가.

(배양순)

그러니까 딱 시내로 나와버리고.

(정동준)

그러니까 동네가 아무도 없어. 짝 소개해 버리고.

(배양순)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2천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으셨잖아요. 그거하고 동네에서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의 근처에서라도 혹시 공연을 한 번 한단든 지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동네에서는 못 하고 밖에서는 하시고 제가 가봤어요.  
동네에서는 그런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사람들도 없고. 잊어버리게.

(배양순)

동네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때. 회장님 소시적에 그런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그다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거의 없다고. 하도 이게 오래된 전 이야기네요.

(윤기중)

생존자는 이분뿐이다.

(배양순)

그래도 60년대나 70년대까지는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왔는데 그 전에 이제 했으니까.

(윤기중)

우리나라는 외침으로 인하여 말하자면 국란을 겪었잖아요.  
예. 그 국란을 겪으면서 평온한 삶이 유지가 안 돼. 그런데 자꾸 우리 일반적 삶도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바뀌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외지로 나가버리고 막 편하게 못 사니.

(윤기중)

그런 것이 말하자면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 아닌

가?

(전남숙)

그러죠.

(윤기중)

나는 그렇게 봐 그런 가운데.

(배양순)

2천년도에 제가 이제 책자를 보니까 상사 면지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요.

회장님이 어떤 유명한 국악인으로 회장님이 딱 올라왔어요.

저도 그래 읽어보고 참 놀랐어요. 국악협회 때 순천 지부장도 하고 한 게 한 두세 페이지 이렇게 사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동준)

문두근이가 썼어.

(정동준)

대학교 순천 대학교. 제일대학교 교수 문두근.

(윤기중)

문예협회 회장하고 그랬어.

(배양순)

그때 그때 보니까 운곡마을에서 또 주민상, 자랑스러운 주민상 이것도 이제 받으셨다고. 동네에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윤기중)

동네에서 받아. 면민의 상도 받아.

(배양순)

그 동네에서 마을분들이 이렇게.

(정동준)

동네 그 상은 그걸로 해서 상을 받은 거지. 육경문이 약간 많네. 그래 이제 동네에서 동민이 동민이 1등 해갖고 상편을 만들어. 그거 있고 지금도 있어. 또 그 다음에 면민이 윤면장이 있을 때 윤면장이 또 해서 상사면을 빛을 냈다 그래 갖고 해준 것이 있고, 또 전라남도에서 자랑스러운 도민의 상을 주어서 도민의 상을 받았고, 또 문공부 장관상을 또 받았고 그걸로 해서 상을 받은 거니까.

(전남숙)

집에 다 갖고 있죠.

(배양순)

한번 찍어봐야겠습니다. 집에 한번 가서 찍어서. 한번 시간 될 때 방문해서.

(정동준)

액맥이 디달방야. 시방 운곡다가 놔두고 갔는다.

(배양순)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상 받은 거요.

(정동준)

이게 대통령상으로 받은 것은 운곡 어디가 있는. 운곡에 내가 놔둔 것 같고 그것을 복사한 것은 여기도 한 놈이 있나!

(배양순)

제가 다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2천년도에 이제 운곡액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여수 국악협회에 몸 담을 때 와서 김향순 선생님이랑 이렇게 약사로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수에서 어쩔 수 없이 여수에 있을 때라 그렇게 했어서 그런 상황들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연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 보면 군인들. 연대 군인들이 와서 같이 남자들을 도와주고 해서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 작업을 잘은 몰랐어요.

저희들이 이 공연을 2011년도에 순천문화예술 대극장에서 이 공연에 있는 내용 디딜 방아 액막이 부분. 디딜 방아 소리 정도를 그대로 또 떼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게.

2000년도 그때 제가 농악 같이 했어요. 같이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게 굉장히 익숙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악 협회가 어쨌든 솔직히 말이 많았고 또 어르신들이 또 왕성하게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고법 하시는 누구지? 이낙훈 선생님도 계시고 김몽석 선생님도 계시고 박영배 우리 전 지부장님도 계시고 또 회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조동점 지부장님 하도 많으셨어요.

저희같이 젊은 친구들이 뭐 이려고 저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이게 운곡 액막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받아서 순천에 전수관을 지어놓고 그 안에 어떤. 메카가 돼서 순천 지역적인 국악 예술 활동이 그쪽 중심으로 이렇게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진작 진작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안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이 부분이 저도 이렇게 여쭙보니까 회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리고 국악협회 내에서도 사고 지부 얘기도 들리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악협회가 만들었으면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배양순)

운곡액막이 보존회가 지금 법인으로 돼 있죠! 회장님 사단법인이요. 그 부분을 살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든 젊은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차피 회장님께서 스트레스 받고 이리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저희도 저희들이 회장님 살아계실 때 그리고 저희들이 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어쨌든 해보려고 해야지 저희들도 한 번 접어버리면 저희 다음 세대가 가면 40대 30대 이쪽 세대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의원이 됐건 시장이 됐건 표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돼야 되고, 문화적인 어떤 자산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지난 20년을 보면.

(배양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끼리 어쨌든 만들어서 모여서 도의원이 됐건 시의원이 됐건 정말 이러한 부분이 국악협회는 국악협회로 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운곡액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통 우리 문화 자원을 살려가지고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여수 가면 뭐가 있고 뭐가 뭐가 있고 광양 가면 전어 잡이 있고 뭐가 있고 많은데 순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국악인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양순)

설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곡액맥이이라고 하는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운곡마을에만 이게 줄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탐석도 운곡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대 세우는 것도 이쪽 이쪽 저 순천만 쪽에 가면 있었다라고 하는 별량 쪽에서도 있었다라는 자료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디딜방아 같은 경우도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 온 저희들의 전통 자산이거든요. 민속..

우리 서민들이 해왔던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 주술 연행 형태들이 그게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찾아보기 어렵고 유일하게 한다는 게 이제 고작 와온이나 해창 가면은 줄다리기가 해가지고 매구도 한 번 하고 이게 말고. 이걸 한편으로 소모적인 거거든요.

한 번 하고 그냥 농악대 불러가지고 줄만 이렇게 하고 마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잘 어떻게 보면 40분에 맞춰서 짜여져 있지만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짐대를 갖다가 베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복원을 해서 영상으로 남기고 자료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이 순천이 갖고 있던 민속 예술의 어떤 보름굿에 관한 충분한 자산으로서 기록도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일단 정리만 좀 잘해 놓으면 연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시민들끼리 이렇게 따로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연행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 받아가지고, 단 1천만 원이고 받아가지고 운곡액맥이 보존에 관한 부분만 교육을 시켜서 보존회를 지금과 다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저는 실패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국악협회 어떻게 보면 순수 국악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성과물이나 어떤 돈이 붙거나 어떤 게 생기면 이익적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면 꼭 자기가 거기에 포함돼야 된다. 자기가 맞지 않다. 자기가 못 한다.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해코지 하고 약간 이런 득과 실의 관계 속에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이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니겠습니까?

(배양순)

회장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단체를 어쨌든 좀 살려가지고,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작업을 해서든지 아니면 회원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액막이가 살아나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방법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국악협회 회원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 또 저희도 한 6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해서 한 열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들과 결합을 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가지고 액막이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과 소중함에 대해서 그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괜히 사람 없다고 이쪽 써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거. 저는 한 6년 5~6년 보거든요.

지금 올해는 어떤 연구 작업으로 끝내놓고 내년에는 조금씩 그러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더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복원을 시키는 게, 영상으로요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정기적인 일정을 잡아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쪽.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배양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실체가 생기면서 이제 문화재 전문위원이 됐건 누가 됐건 모셔가지고 좀 더 내용들을 체계를 잡아가면은 순천에 정말 소중한 것일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야 뭐 그동안에 모르고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재. 다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지만 그동안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왜 힘드셨을까 라는 걸 보면 조금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배양순)

저기 있었다고 하면 아마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이게 잘 움직이고 있다면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고 나도 한번 같이 가서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소중한 자산 자체가 주암에 가면 물보기 곳이라고 하는 게 문화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월등하면은 달집 태우기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재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양순)

운곡마을이 갖고 있는 공간 상황은 마을 집단 연희 방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곡마을 자체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례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서 충분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집단적인 연행 방식이나 연행 형태는 순천만이나 낙안읍성을 통해서 공간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복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제가 운곡마을 출신도 아니고 순천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순천지역에서 할 것이고 이러한 문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승 되어져야 될 분명한 가치가 있고 예술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양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수준 높은 소리가 필요한 판소리처럼 수준 높은 소리를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하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내에서 저는 또 이게 시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배워가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장단하고 노래 이 부분들을 1년 내내 연중으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운곡 액막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면 같이 연행할 수 있게끔 회원으로 참여해서 그걸 복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운곡마을에서도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하려고 하느냐.

운곡마을에 들어가 살 마음은 없고, 운곡마을에서 했던 걸 내가 그걸 공부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개인적으로 수준이 있고 바르게 잘 보존돼 있고 잘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희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조직에 관한 부분도 회장님께서 갖고 있는 조직 자체를 어쨌든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또 그것 자체가 그대로 오롯이 있어야지 만이 그것이 그대로 그 보존회를 통해서 전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복원이라면 복원 및 재현이라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기중)

방금 말한 대로 사장되기는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를 우리가 남겨서 계승하게끔. 계승이라는 말이 너무 광대하다면은 우리가 그 자체를 흔적이라도 한번 밟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국악인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윤기중)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많아요.

그러나 그건 과거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근거를 해서 어쨌든 이걸 해야 할 일은 국악협회에서 해야 하니까 국악협회하고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정동준)

이렇게 노력해.

(윤기중)

나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더 넓고 기억력이 더 사라지기 전에 하나라도 더 추려서 간추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참으로 좋겠고.

(윤기중)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 나는 운곡액막이 못하고 전혀 거리가 참여도 못 했고 그 당시에 우리 남도국악제 1년에 한 번씩 나가면 바가지로 탈이 필요하다면 바가지 갖고 나서 내가 바가지 넣어가지고 탈도 만들어주고 하는 보조자 역할을 했으니깐.

(윤기중)

하여튼 좋은 시간 됐고 좋은 자료를 앞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너무 흠뻑어. 없어. 놔두면 그냥 사장 돼버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뭔가 문헌이라도 나 생각도 그래 뭔가 문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후손들이 볼 때도 이런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문혀져 가고, 버려져 가는 것을 허투로 아니하고 모아놨구나. 얘기라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배양순)

다음에 회장님 상장이 있으면 상장이나 상패 이 부분을 한번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을에도 한 번 더 가서 저희들이 마을을 한번 쪽 돌아보려고요. 예전에는 올봄에 연초에 갔을 때는 당산나무 어디에다가 짐대를 세웠고 옛날에 어디다 세웠고.

(정동준)

그것만 보고 왔지 지난번에.

(배양순)

그냥 당산나무 암당산, 숫당산. 그리고 탑석 이렇게 해가지고 회장님 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을 한번 이렇게 쪽 한번 걸어서 좀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준)

운곡이란 마을은 하나라도 톱덩이 따로. 옛말이 애네를 내는 말이 놀기좋은 증똥. 일잘한다 국시맹이. 알고지고 구술똥. 궁구로 간다 당산물. 뚝 떨어졌다 지경. 날아든다 삼박꿈. 지금 이런 말이 있거든.

(배양순)

예

(정동준)

똥마동 그 말이. 이게.

(정동준)

지금 낙안 넘어갔는데 그가 지금이거든 그 운곡 땅이에요. 전부 다 지금 이제 교통이 그렇게 막 어언 초곡 이런 사람들이 그까이 와서 농사 짓지. 운곡은 그거 짝 팔아버리고 이제 지금도 운곡이야 그래갖고.

(정동준)

이제 운곡 동네 뚝 떨어지게 뚝 떨어졌다. 지금 이런 옛날 무슨 말이 있어.

(윤기중)

진짜. 그리고 숨어 있는 원래 취지가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문화예술을 발굴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원래 취지가 그런데 이제 다 써먹다 본게 이것이 어디서 만들 것이 없어. 그런데.

(정동준)  
그래도 기술자들은.

(윤기중)  
그걸 기획해서 만든다고.

(정동준)  
그런 것이 기술이야 쉽게 말해.

(윤기중)  
요만하게 했던 것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극대화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돼. 아까 말한 대로 흥길동도 어디 고향인 장성이라고 그러고 춘향이가 여기 곡성에서 심청이가 곡성에서 났다고 그러고 그런 세상에 있고 하니까 대동강 물도 팔아 먹는다..

(윤기중)  
최소한도 문화재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엄청 복잡해. 그리고 유적이라는 것은 이 건 예를 들어 우리가 기억으로 전혀 찾을 수 없는 유적들을 찾아야 돼! 증거를 찾고 그 과정이 최초부터 시작된 근원지부터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 근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전남숙)  
그 이정현 그때 국회의원이 있을 때 그런 작업들이 통 안 됐어요?

(윤기중)  
작업은 이제 말하자면 이정현 의원은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담당 행정관한테 조크를 한 거지. 해주라. 이거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실 자기들이 거기에만 전매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해서 누가 직접 전선에 나서가지고 이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가 꿰매야 돼.

(전남숙)  
그럴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그런.

(윤기중)  
꿰매려고 보면 가다가 걸리고 걸리고 딱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운곡까지 갔다 왔잖아요.  
발원지는 운곡이니까. 이제 운곡을 하는데 그거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 할머니 말하자면 이런 양반들의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돌아가셨지만 그 행적은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이걸 어렵게 연결 연결해서 말하자면 그걸 이제 작품화 해 갖고 전남에서 1등을 하고 전국대회에 가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한다고 까지.

(전남숙)  
그러면 그 돌아가신 할머니 그 후손들은 거기 동네에 살고 계세요?

(윤기중)  
후손들이 살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김갑순 할머니다. 이렇게 딱 집을 동네에서 이게 이게 모듬 놀이처럼 했던 거라서 막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방금 말한 대로 김갑순 할머니 그 양반이 주도해서 이렇게.

(윤기중)

직접 기획해서 만든 게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할라고 저 영옥 씨 우리 국악협회에 옛날에 있던 김영옥 씨가 무지무지 노력했어.

(윤기중)

김영옥 씨가 그래. 그리고 이제 이정현의원도 역시 그런 걸 보고 더구나 이제 호남이 자기가 집이고 우리 순천과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런게 뭔가 하나 만들고 싶다는 의지는 가졌는데 역시 장벽에 부딪혀서 연계가 어려웠다.

그런데 과거에는 솔직히 말해서요.

곡성이 누구 고향이라 그래! 심청 고향이라고 그래.

(전남숙)

지금 빼앗겼잖아요

(윤기중)

저 장성이 흥길동이 고향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도 만든다. 근거가 있는 이것도 못 만들어. 나는 그래서 안타깝다. 이게 행정의 좀 도와줘야 된다. 내가 목청을 높인 이유가 바로 그거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순천이 지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제일로. 정원을 품은 순천. 이렇게 구호들을 외치지만 과거에는요!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는 순천은 그랬어요.

우리 순천은 원래가 구호가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는 청렴한 순천. 그렇게 우리가 구호를 했어. 삼산이수가 맑게 흐르는 순천. 이런 식으로 구호를 했거든 과거에는.

(윤기중)

그런데 예술에 대한 솔직히 말해서 점수를 준다면 우리 순천의 행정의 예술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 13. 순천 운곡 액막이 대보름굿 인터뷰2

주제 : 2000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 준비 시 순천운곡액막이대보름굿의 준비와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대상 : 김향순(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1호 동편제 흥보가 보유자)

일시 : 2022년 07월 07일(목) 19시

장소 : 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참가자 : 배양순, 추성민, 전남숙, 김윤설, 박재철, 전수평, 배은화



김향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1호 동편제 흥보가 예능보유자)

(김향순)

그 양반이 오랫동안 지부장을 하면서 회장님 보고 형님, 형님해.

형님! 내가 지부장하고 죽기 전에 순천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리 됐어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만들어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요만큼이라도 뭔가가 있어야 되네. 있어야 된다는 뭔가는 그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됐든 노래가 됐든 민속 놀이가 됐든 뭔가가 있어야지 전혀 없이 만들 수는 없네 이리 된 거야. 회장님이 그러니까 정동준회장이 그러면 한번 알아보랍니다. 이랬어 일차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정동준 회장이 저 우리 동네를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자기 태어난 동네를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 가서 파면은 뭔가가 하나 있지 않을까요? 이리 나왔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래 그 이왕이면 다른 동네에 해주니 자네 동네에서 하면 좋지. 그럼 자네 동네 뭐 있는가 허니 있다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 어딘지는 몰라요. 상사 어디로 해가지고 들어가더라.

(배양순)

운곡마을 있어요. 운곡마을.

(김향순)

응. 그건 나는 이제 모르지. 그래 갖고 나 회장님 정동준회장. 그때 조 지부장은 갔는가 안 갔는가는 몰라. 자기 태어난 동네라더만 그리로 갔어. 갔는데 마을 앞애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 지금도 기억해 뭘 당산 같은 게 하나 있었고 그 앞애가 이런 돌 입석이 하나 있었어. 그 마을에 가.

돌 같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들어가자마자 저거 뭐가? 그게 아니 마을에 옛날에 저 입석인데 저기다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가? 그런게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 그럼 됐네.

여기서 제일 원래 회장님은 조사를 하면 그래 여기서 제일 오래되고, 그 1대 2대 3대 4대 오래 산 집이 어딘가 그것부터 찾으서 그래야 이제 실타래를 풀은게.

그러니까 아 저 뭐 자기 친척 되는 영감이 한 분 계신다고 그래. 그러면 그 집으로 일단 가세. 그래갖고 회장님이랑 나랑 이제 서이 갔어. 그러니까 노인이 그 옛날에는 그걸 보고 토방이라고 그랬지. 토방에 노인네가 남자분인데 여기 앉아 있더라고. 그러고 회장님이 가 갖고. 저 본께 입석이 있던데 옛날에 저 입석에다 뭘 하셨습니까? 그 아이~~ 입석에다가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정초에 저기 뭐야 마을에 편안하라고 거기에서 매구도 치고 그랬네. 그러셨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 그러냐? 그러고 이제 이제 가서 이제 요새 같으면 옛날에는 그걸 회장님이 호구 조사라고 그래. 성 씨가 몇 년도에 여기 와서 살고 지금 현재 몇대 몇대 그 조사부터 이제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자기 그때 말로 뭐 자기들이 4대가 5대가 그래갖고 거기 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크게 했다. 근데 일제시대 때 그게 좀 막아졌어.

(전남숙)

아. 단절이 됐어.

(김향순)

일제시대 때 못 하게 했다가 다시 해방되고 동네에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저 저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동네에서 십시일반으로 걷어 가지고 다시 그걸 부활해 갖고 거기에다가 당산에다가. 그러고 당산에다 이렇게 썩은 줄이 이렇게 있더라고. 회장님이 저 뭐냐니까 아니 그 전에 줄다리기 하다가 그 나무에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몰아 났다고. 본께 짚이 썩었어. 이제 일 년 되면 썩거든 비가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딱 왔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회장님이 이제 대강 인제 틀을 잡았어. 틀을 잡고 이제 그다음에 회장님이 혹시 그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분이 있었냐?

그러니까 잘은 아난디 그냥 대강 불렀던 노인이 있습니다.

그면 그 사람을 한번 순천 국악협회로 데고 와라! 이리 됐어. 그거 알았다.

그때 순천 국악협회가 소방서가 어딘가 있었을 때 거야. 저쪽에.

(전남숙. 배양순)

저전동. 소방서 2층인가?

(김향순)

그때 막 순천 가도 나도 연습하고 막 그럴 시기였어.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 영감님 보고 영감님 동네에서 불렀던 노래 있으면 노래해 보시오. 노인네가 뭐 하라 하면 내가 노래하니까 응 얼마나 됐는지 내가 이제 와서 노래를 해? 노래 다 까먹고 몰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어르신네! 그 말 들어보니까 짚 거식 할 때랑 꼬아 가꼬 이렇게 붙이고 뭐 저 줄다리기 할 때 노래 불렀다면 그래 그러니까 노인네가 그줄 메고 오면서는 얼싸 더리 덜렁 불렀지. 그래.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 여수하고 똑같구나. 여수하고 순천하고는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그러면 디딜방아를 옛날에 훔쳐 오셨으면 그걸 세우려면 마당에다가 땅을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근께. 다구지 그래. 그 다구소리 아십니까? 근께. 기억은 잘 안 나는 디 하기는 했어. 그래 그러니까 그 영감님 말씀이 그러니까 회장님

이 그래요! 조금 좀 불러보게! 난 못해 다 잊어버리고 몰라. 그랬어 내가 어르신 딱 한 절만 불러보십시오. 우리는 한 절 들으면 이제 노래 흐름을 대강 알고 박자 같은 걸 알거든.

그 노인이 혼자 뭐 얼얼얼 상사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노래를 딱 들으면 야 곡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우리가 글잖아. 노래 하다가 음 틀려버려도 음이 올라가는지 내가 이제 대강 알잖아. 원래는 이 음인데 여기서 내려갔구나 하고. 가사는요 그게 그 아무거나 동네 막아주라고 하고 뭐 그러고 지붕 상량 세우고 어찌고 어찌고 그 가사를 붙였어.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그러고 하면서 내가 그 영감이 보고 그런 것 같더라.

저기 구산 가면 물보기 곳에 다구질 소리가 있어. 구산 물보기에.

구산.

순천 구산 저기 저 주암에서 휴게소 못 가서 요리 빠지는 데 있잖아. 거기가 승주 승주 인터체인지 거기 가면 구암마을이라는데 거기가 거기도 우리가 작품을 해가지고 물보기곳이 전국대회에 갔고 국무총리상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 거기야. 거기는 솟대를 세워 여기는 말하자면 입석을 해서 뭐 하자면 지금 디딜방아를 세우잖아. 거기는 솟대를 세워. 그래서 솟대 세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 불이 많이 난대. 그 구산 마을에 구산 마을에 불이 많이 나서 풍수.

저기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솟대를 세우면 불이 날 마을에 불이 적게 날 거라고 그런 말을 하고 가셨대.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서 자기들이 솟대를 세운다고. 그래가꼬 그 노래를 내가 이제 가르치고 그래놓은 게 알기를 그 노래를 살짝 불러주면서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그게 비슷해! 그 영감님 글더라고. 그래서 이제 곡은 알았으니까 가사는 우리가 민속학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일대 거의 70프로는 같다고 보면 돼. 가사는 꼭 그 지방만이 내려온 가사가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산아지타령 하면 거기서 그만 그만 그만 그만하잖아. 그래서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으로 고 딱 정리. 그 저걸 열싸 덜이덜렁 하면서는 줄을 메고 오고 그러면 방아를 돌아올 때는 노래 없습니까? 근께 그 영감님이 이제 그때는 그 영감이 회장님이 그렇게 한 줄은 몰라. 큰 사람인지.

어이 생각이 없어! 넘으켜 돌아오는데 큰 소리 내고 돌아온가?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알지. 그건 맞는 말이잖아. 도둑질 한 사람이 나 도둑질 허러가요~~. 악쓰지 않는다 그거야.

그러면 언제 갔오? 근께. 밤중에 간다더만 저쪽 마을에 다 잠들어 버렸을 때 살짝 가서 디딜방아를 살짝 모르게 갔다가 딱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문을 했지. 아니 자기 마을에 디딜방아가 대부분 마을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기 마을에 하나가 없어지면 저쪽 마을에 와서 향의를 할 거 아닌가.

요새 같으면 수박만 하나 돌려 가도 난리 나잖아. 응, 근데 디딜방아를 돌아오면 그 마을은 방아를 못 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마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옛날에는 서리를 해도 말 안 했어. 닭을 잡아 먹어도. 그거나 이치가 같다. 그거야. 연자방아, 저기 디딜방아를 돌려가꼬 자기 마을에다 세워 보면 자기 거일 진정 말은 못 한다.

자기 것일지라도 가서 왜 우리 것 돌려 갔냐? 그런 말은 못 한대. 이 마을에서 액땀을 하기 위해서 돌려갔는가 보다 하고 그냥 좋은 뜻으로 생각했지. 그럼 그걸 왜 꼭 밤에 돌아갑니까 한께. 낮에 가면 동네 사람이 다 알아서 못 가게 막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대. 그러니까 저 마을에서 보초 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 저 마을에 사람이 자냐 안 자냐. 그러니까 이쪽 마을 사람이 가서 봐. 봐가꼬 저 마을이 조용하고 잠든다 그러면 우리 이쪽 사람이 얼른 가자고. 돌러러 가자. 그 그래갖고 돌려갖고 살짝 갖고 와. 세울 때까지는. 조용하게 세우면 돼. 그러면 그 디딜방아 위에다가 디딜방아 이렇게 생겼어. 거기다 속 곳을 건 이유는 뭐냐 하나까, 그건 민속 신앙에서 온 거야. 민속 신앙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아들을 많이 낳는 여자 속옷을 베껴가꼬 거기에다 피 묻은 속옷을 걸어 놔서 피는 빨간색은 뭘 상징하냐 하면은 액을 막는 상징이 빨간색이.

(전남숙)

보통 팔 색깔하고 비슷한건가요?

(김향순)

그렇지. 우리가 액막기에서 팔을 뿌리잖아. 그거나 그 고쟁이에다 빨간 핏물 든걸 묻히는 것도. 그것도 마을 액을 막는 것이야. 그래 갖고 돌아다가 거기다 세우고. 그러면 세우려면 땅을 다져야 되니까 다구 소리가 있어야 당연한 것이고, 그래 갖고 인자 세워놨다..

세워놓고 나서 그래서 제를 지낸다. 그거지

자~~ 디딜방아 우리 마을로 모셔왔으니까 저쪽 마을이 아니고 이제 우리 우리 것이 됐으니까 우리 마을과 안녕과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고사를 지낸다고 그러니까 회장님 이제 다 일일이 써. 회장님이 세밀하게 쓰셔 갖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정월 대보름 날 줄다리기를 했지. 이제 그러면 암줄, 숫줄이 같이 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암줄을 메고 남자들은 숫줄을 메고. 그럼 노래는 뭐니까? 그러니까 얼싸 덤이덜렁 그랬다 그래.

회장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주로 뭘 줄이 이겼습니까? 이제 뻘히 알지만 그래도 증거가 돼야 되니까 그 노인들이 한 말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기면 그해 흉년이 든게 안 되게 여자들이 이겨야 되니까 남자들이 옆으로 져줬다 그거예요.

줄다리기를 할 때 따라가 준다. 그거요.

그래야 여자들이 이겨야 만이 그게 풍년이 들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대강 인제 그렇게 인자 조사를 하고 그 마지막에는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줄을 갖고 와 갖고 줄다리기를 해갖고 이긴 쪽이 여자 줄 밑에 감고, 남자들 위에다 감는다 그거야 그러니까 성행위나 똑같다. 그거야. 여자들이 밑에고 남자들을 위에고. 응 웃줄로 감았다. 그럼 감아놓고는 뭐 했습니까? 거기서 또 절허고 제사 지내지. 그러니까 아까 디딜방아한테 하는 제사하고 이쪽하고 또 다른 거야. 여기는 여기대로 한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한 것이고.

그럼 줄 지르고 나서는 뭐 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술 먹고 한 잔 먹고 노는 거예요. 그 놀 때 뭐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저 마을에 재수 있으라고 액막이도 부르고 농악도 치고 막 그랬지. 그러냐고 얘기대로 이제 회장님이 정리하고 이제 그걸 정리하는데 그 한 서너 달 걸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연출번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서 이제 회장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해서 이거 대고 이거를 이렇게 해. 왔는데 노래는 자네가 맡으소 그래. 노래는 그러면 맡은 것은 좋은데 누가 노래를 부를 거여? 그러니까 아이~~ 한번 가르쳐보고. 남이 디딜방아는.

저기 이제 뭐냐 다구는 원래 남자들이 하는건게 남자를 노래 가르쳐왔어. 통 순천에 찾아본 게 이낙훈 선생 밖에 없어. 그 당시에 행님 행님하고 맨날 운전 하고 따라댕겨. 그럼 장소. 이낙훈 선생 또 시켜. 그러면 이 액막이가 배선생님도 알다시피 농악에서 하는 액막이 노래하고 무가에서 허는 액막이하고 달라 가사는 비슷한데 약간 곡이 달라. 그래 갖고 액막이 그 노래를 돌아가신 그 무가 순천분 순태씨 있잖아. 순태씨하고 순태씨 부인이 이 노래를 알아. 그래서 녹음을 해갖고 와갖고 그러면 노래를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갖고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좀 불러주십시오. 근데 처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 한다 그래. 알고 보니까 정동준회장이 무진장이 짠들이야 무진장이 짠들이야 그러니까 전국 대 나간 것만 해도 어딘디 이걸 왜 애 밝혔냐는 식으로 그래서 회장님이 그러니까 어이 동생! 그 사람들은 그것이 주업인데 줄만큼은 줘야 되는데 거기서 돈도 많이 시에서 탈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형님 뭐 어찌고 저찌고 안 해버렸어. 이낙훈 선생은 쎄가 나게 나가 이제 노래를 가르쳤네. 근데 저 양반도 문제는 민요 성음하고 판소리하고 달라야 된대. 꼭 소리조로 해~~ 소리 조로 해부러 그러자 회장님이 한번 나보고 그때 나하고 같이 우리 선생님한테 노래 배우던 서봉예라고 있어 징 치면서 부르는 거 노래 했어. 순천 여자고도.

(전남숙)

그 사람 무당 아니죠?

(김향순)

아니요. 아니 저

(전남숙)

너무 딱이지.

(김향순)

소리 들어보면 몰라! 그때 이제 나한테 노래를 배우러 댕겼어. 또 서봉예씨가 근다고. 회장님 저 용돈이라도 벌어 먹게 자를 좀 무가를 좀 가르치쇼. 그래 그러네 어정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한대요? 아이 그럭저럭 잠깐 한 2분만 허고 댕기게.

꼭 가르쳐라 그거요. 그래서 이제 노래는 가사는 이제 외웠어. 그런데 이제 징을 치면서 해야 되잖아. 뿔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디 또 하고 또 주술해야 되고 또 사이사이.

힘도 센 데다가 악센트가 강하니까 그게 안나 온 거야. 그 느낌이 안나와부러. 서여사 부드럽게 해라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자기 온 전공자가 아닌디 그게 될꺼여. 그래서 이제 날짜는 닥쳐 오지 뭐야 팔마 체육관 뒤쪽에서 두 달인가 연습했네.

전국대회에 나가라면서.

그래갖고 농악은 그때 누구를 했는가는 몰라도.

(전남숙)

그때 저희들이 했잖아요.

(김향순)

그랬는가

(전남숙)

네. 손 선생님이랑

(배양순)

웅이 형이랑 같이했어요.

여수에서 다 올라와서 광양 저 윤숙미 씨 쪽에서.

(김향순)

응. 맞아 맞아. 자우간 총 합쳐갖고 그래 갖고 했는데 이제 전국대회 갈 때까지는 분야별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무녀 하신 분이 순태씨 부인 박정자씨야 이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안 한다고 그래 갖고 이거 안 한 게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이낙훈선생은 그래도 이제 나간 게 좋다고 자기가 한다고.

(김향순)

그럼 됐다 여자인 나라도 다구소리는 할 수가 없어. 이치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다구는 남자들이 하는 거야.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 그때 한 보름인가 남겨놓고 그래갖고 그 시기를 보고 또 노래 부른 여자들은 뭘 행자 들어간 여자가 있었어. 김행 뭘가 그 순천 국악협회에 정동준회장이 그래갖고 형님 저 여자를 선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보고 그래갖고 그 여자가 선창을 할 수 있게끔. 뭘 행 뭐야. 나 지금도 이제 몰라 행자는 뭘 좌우간 행자만 들어간 것만 알아. 이제 이제 키워주고 싶은 게 선창을 시켜주라 그거요. 그거 좋다고 도새 나가 안 하니까.

노래를 가르치는데 아이 이것 또 안 따라주지 음치 박치인디 그걸 어떻게 전국대회를 데리고 갈 거요? 좀 힘들겠는디요! 내가 그랬던만 정동준회장이 갈꺼여 안 갈꺼여. 그냥 막 여자를 보고 막 나무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노래라는 것은요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고 몇 십년을 그 속에서 사는 사람도 막상 대회에 가면 앞뒤가 콕 막히는 법인데 그게 되냐? 근데 이제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이제 정동준회장에게 콩냥거리고 제 안 시켜준다고 그러고. 그 여자는. 그래서는 이제 처음에는 누구야 오지부장이라고 여자 있지. 여기서 그냥 사무관 이거 뛰었잖아. 그 여자를 또 시킬려고도 생각을 했어. 선창은 근게 정동준회장은.

(전남숙)

안 된다고 커트 당했네.

(김향순)

왜 그러냐면 이거 시키고 시키면 이거 난리 나. 본 게 근데 오공례씨도 시키려고 본께 안 돼. 배우지를 못해.

(배양순)  
노래가 안 돼.

(김향순)  
소리가 안돼. 자기는 명창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전달 할 수가 없어. 전달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 그래서 이리 밀다 저리치다 저리치다 저다라고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이랑 정동준회장이랑 이번에 마침 장소도 낙안에서 하니까 순천서 탈 수 있는, 순천서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심사위원 들하고 알고 로비를 하면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어. 그때만 해도 근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 들이 전부 요새는 그리 았더라 전문가들만 았아...

그때는 전남 민속 축제나 전국 대회는 누가 았았냐면 민요는 이소라가 보고 저기 저 임동 권 교수라는 분이 저기 그분이 민속학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민요론 대가야. 그분 보고 무용 이나 농악은 정병호 교수 받아 중앙대 정병호 교수. 그리고 신찬균 씨라고 세계일보사 차장 님은 그분이 또 대단해 이 민속악으로는 그분이 심사를 보시고. 아주 쟁쟁히.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이제 어쩔 수 없어 갖고 이제 나한테 톡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이. 이 사람은 얼굴.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이 김 선생은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국대회에서 가서 노래를 선창을 할 거냐? 상을 타는 것이 뭐 목적이지 김 선생이 얼굴이 무슨 상관이나! 정동준회장이 욕심을 한 거야! 이제 뭔가 만들어 놓고 본 게 뭐 될 것 같거든. 그래갖고 소품 다 만들었지. 어찌지 그래서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어쩐가 저 정 동준회장이 저렇게 목을 멘디 자네가 좀 도와주소. 그랬어 내가 그러면 내가 저 다구는 남 자가 해야 되는 게 이낙훈선생한테 맡기고 이것은 내가 차마 못 하겠소. 나도 모르지 나도 지도는 했지만 내가 징 치면서 이걸 혈수가 없으니까. 그냥 잘하나 못 하나 서봉예씨 시키 고 그 가운데 나가 노래만. 액맥이 노래하고 가운데 부분만 나가 혈라요. 그렇게 하라고. 그 래갖고 이제 연습해가고 이제 한 이. 삼일 전인가 우리가 낙안에서 막 연습을 하다가 회장 님하고 이낙훈선생하고 또 한바탕 잔디밭에 싸우고 난리 난거 기억하는가?

(김향순)  
그런 말 해도 되는가?

(전남숙)  
다 하십시오. 이미 다.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우리는 다 잊어 먹지.

(김향순)  
그 디딜방아를 돌아오면 원래 있던 마을에 방앗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갖고 저기 다 지들 디딜방아를 넣어놓고 거기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방아를 짚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장님이 몇 미터 몇미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대로 세트 한 사람한테 가서 맞춰서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가 무대니까 저쪽에다 해놓으면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디딜방아 하나 메고 이렇게 본부석 앞으로 오는 걸로 하고 니가 그렇게 말으라 하니까 하! 걱정마십시오, 형님. 하루 전날 인자 리허설을 하려고 갔는데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놔본거야. 회장님 성 질 있잖아. 그러니까 아낙훈선생이 암말도 안했으면 싸움이 안 될 건데 자기도 사람 많은데 도 여자들 많은디서 이러라고 헨디 회장님이 난리를 친 게 이미 내가 이거 안해 먹으면. 그 러니까 자기가 그날 안 허면 다구 소리가 빵꾸가 난 게 지도 이제 한 번 지른 거야. 니 안 허면 김선생이 하면 시키면되지. 이제 시끄름이 났어.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 회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살살 말하면 될 건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병신 만든게 나도 그랬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사과 허고 말았어. 그래갖고 이제 그날 출연은 이렇게 딱 허고 이제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될 수 있으면 얼굴 보이지 말고 나보다 수건을 이렇게 깊이 이 만큼만 써버리라고 하얀 수건.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옷까지 해줬어. 나 이 옷 어디가 있어

지금 빨간 치마 흰저고리. 그리고 딱 나갔는데 중간엔가 한참 뭘 하고 있는데 본부석에서 뭘 기자가 하나 내려왔어. 기자가 딱 내려와 갖고 회장님 보고 저기 잠깐 심사위원 신찬균 씨랑 거 임동권 박사님이 잠깐 좀 뵈잖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가시더라고 우리는 이제 막 굶히고 뭐하고 막 정신이없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줄만 다려갖고는 무의미하다 그러면 암줄 솟줄을 누가 봐도 확연히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오공례씨는 할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회장님 입이 좋잖아. 오여사는 생긴 것도 예쁜 게 족두리 써놓으면 이걸 거라 이런 거야. 그래갖고 족두리 해갖고 입히고, 그리고 남자는 누가 했던 거는 모르겠어. 나 하면 보면

(배양순)

조동점회장이 안했어? 그때 당시에는 약간 멋있게 생긴 분은 아니야.

(김향순)

그래가꼬 회장님이 당신이 솟줄 앞에서 사모관대 쓰고 하고, 저기 암줄은 저기 오공례씨가 저기 족두리 쓰고 이쁘니까 이런 거 춤추면 기가 막힐 거라고 회장님이 이제 또 이만큼 띄어 놓은게, 그러면 나 회장님 그거 할까 이리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것은 원래 없는데 회장님이 연출상 집어넣은 퍼포먼스면서 그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연출가의 재량이야. 그것이 없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짜다가 아니고 이것을 돋보기 위한 하나의 화채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민속놀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기둥이 가장 중요해. 기둥이라는 건 그 마을에서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 기둥이 딱 쓰고 나면 그다음에는 옷을 입혀야 돼! 화채 가락. 자네들도 그렇잖아 어떠한 가락이 딱 기둥적인 가락이 있고 그 가락에 변주법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변주법이다 생각하면 돼. 그래 갖고 이제 회장님 그러고 있는데 한참 허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갈 무렵 뒀게 회장님이 왔더라고 어이 나 좀 보세요..

올라 오라 해서 올라갔더니만 신찬균씨하고 정병호씨가 정 회장 이리 좀 와보시요! 그러더라. 그래서 왜요? 지금 노래 부른 사람 사모님 아니요? 그리된 거야. 그게 회장님! 예. 그게 이런 데 나오면 안 되지~~ 전문가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향의가 들어오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예 실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리 이리 했다고 인제 회장님이 이야기를 했다.

그럼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이리 들어서 뭘 약속? 이걸로 김향순이는 절대 민속경연대회에 나와서 선창은 안 하는 조건으로 이걸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수상을 할 것이고

(배양순)

도와주겠다.

(김향순)

수상을 할 것이고 그리 안하면 상 못주겠소. 이리 됐는가 봐.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게 아니! 다음번에는 절대 안 한다고 하고 왔네. 그랬어. 알았어.

누구는 뭐 하고 싶어서 했어? 허랑게 했지! 나 이제 그래 불고 말았어. 그래갖고 어쨌든 대통령상을 탔어.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이것을 그 당시에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라고 회장님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정동준회장 보고 시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타가지고 순천시에서 행사 일 년에 한 번씩 문화재 같은 거, 순천시 뭘 문화재 그런 거 있잖아 일 년에 한 번씩 선을 보여라. 그래야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야지 이게 계속 애쓰고 고생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안 없어지고 계속 전승될 거 아니냐. 대답은 이해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본계 사람들도 물론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자들이 문제가 많드만. 어쩌든지 여자들이 꼭 사고를 쳐 여자들끼리 싸움이 생겨.

(전남숙)

서로 할라고 자기 할려고요. 좋은 거 하려고요.

(김향순)

여자들이 여자들이 깨닫고 응. 너는 뭣 하고, 너는 뭣 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내가 왜 그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여자들 중에서 그 당시에 제일 영리하고 체격도 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여자를 총괄을 시켜놓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 이 여자를 못 잡아먹어. 죽어 나머지 여자들이 그리고 아까 말한 거 행잔가 뭔가 요것은 나 노래도 안 시켜주고, 빼쳤어!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소고 잘 친 할머니 있고 지부장 했던 사람 있잖아.

(배양순)

박영배지부장.

(김향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가 농악 대장 아니고, 뭐 하고 입이 이만큼 부로 터져 갖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회라는 것은 인정상 가까운 것 하고, 기능을 가진 사람은 달라 우리로서는. 어떠한 목표를 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로서는 써야 돼.

근데 내가 그래도 순천 살고 그런데 나를 상쇠를 안 시키고 엄은 놈 데려다가 시킨다는 식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분란을 시키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자기 선창 안 시켰다고 또 분란이고. 또 여기 여자를 관리하는 그 여자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우리 보고 이제 끝나고는 이래라 저래라고 한다고 그래갖고, 안 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 안 되더라.

그래서 옛날부터 민속놀이하는 여러 군데서 모아서 하면 머리가 아파. 이런 현상이 와. 어느 한 마을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악사들만 딱 투입이 되면 괜찮은데 여기는 순천 일대 사람을 다 모아.

(전남숙)

그때 모았어요.

(김향순)

사람이 부족하니까 순천 일대를 모으다 보니까 즈그 마을끼리 풍단 풍단. 저쪽 마을끼리 풍단풍단. 또 저쪽 마을끼리 풍단풍단.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지는 거야. 깨져서 오래 못 갔어. 그래갖고는 이제 한 번도 안 했을까? 그다음에는 시연으로 가. 시연으로 갈 때는 사람들이 반도 못 갔어.

한 번 일등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시연을 하잖아. 그 다음에는 반도 못 가 갔고 그만 뒤 부고. 나중에 이제 회장님이 자네가 그 대통령상까지 받았으니까 문화재라도 한 번 신청을 해보고 조사를 한 번 시키소. 근께 말은 예 해놓고 했는디 가는 이거 안 생기면 뭘 일을 안 해. 다른 사람은 우리 생각하는 거 하고 달라. 그러면 예 대답을 해놓고 또 한참 있다가 어찌 됐는가? 그게 모르겠네요. 사람이 뭐 나온다. 했다. 안 나온다고 했다가 뭣이 어찌고 저찌고 그 회장님이 그래. 자네 하는 짓이 틀렸네. 그리고 말았서. 이제 지금까지 소멸이 된거지.

그러니까 나도 몇 년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거 본 게 벌써 22년이 됐구먼. 근데 엇그저께 자네가 준 보내준 음향 내가 뭘 노래인지 모르겠단거 있잖아. 기억이 안 난다고. 여기에 불렀던 노래가 음향을 다 내가 이렇게 들어보는데 내가 요새 와서 느꼈어. 그걸 듣고 참 노래 뒤지게도 못 했으나 봐. 노래를 들으러 보니까 청을 무진장에 높이 잡았던 마. 그래서 한 그게 벌써 20년 같으면 40대야. 그러니까 패기하고 힘만 있지. 그건 쓸라면 쓰고 말라. 패기하고 힘만 있지 어떠한 멋이나 이런 게 노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가 듣고. 참! 우리 김향순이 드럽게 했네.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자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네들이 잘한 것 같단 말이야. 근데 10년 뒤에나 요새 했던 노래를 가만히 들으면 으메 내가 저걸 노래라고 불렀다 그 말이 그것이 어찌 보면 옳은 예술가들은 그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내가 잘한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데. 엇그제 그거 듣고 내가 얼마나 내 속으로 아이고 젊다고 오살나게 청만 높여가고 악만 뻑뻑 썼지. 뭐 노래라는 게 들을 수가 없으면 내 스스로 하고 부끄러워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구나. 우울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다시 소멸된 것을 살리려면은 제일 먼저 손 끝에 하신 분이 잘해야 돼! 글



쓰시는 분이 타당성 있게 이것은 순천시에서 첫째 그분 그림을 그릴려면 색채를 그분이 잘 쳐야 이빠. 그래가지고 순천시에서 뭘가가 우리 순천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걸 찾아서 우리가 도와갖고 여러 우리 순천의 실기인들이 있고 협회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 순천에 하나의 상징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관청에서 할 일이지.

이제 관청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색채를 하시는 것은 교수님이 그 타당성을 잘 쓰셔야 돼. 그래가지고 시에도 한 번 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전개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못해 그 마을에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요. 운곡마을에 다. 제 몇년도 몇월 몇일날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우리 현천 소동패 마을처럼.

(전남숙)

전수관에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김향순)

응. 몇 년도에 거시기에서 전국 대회서 대통령 상을 탔다고 비석이 세워짐으로 해서 가치가 더 높아. 그러면 순천시에서도 관심 있어. 그게 그러려면 이 운곡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돈 돈이라도 그 비석을 세워놔야 돼. 기념비를. 그래야 누가 와서 보거나 시에서 보더라도 이게 있구나 있구나. 마을에서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나 도에서 가서 보면 흔적이 없잖아. 흔적이 없는데 문화재를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 교수님이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 생각이. 나 생각이 그래. 그다음에 이 마을에서 조그마한 다음은 몇십만 원짜리라도 기념비를 하나 세워놔야 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에 비석에 아! 대통령상 탔 게 이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시에서 관심을 갖고, 보조를 해주면 이제 순천에 있는 저기 뭐냐 관심 있는 국악인들이 모여갖고 단체를 만들어 끌고 가야지. 그게 꼭 광범위하게 할 필요는 없어. 한 형식적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농악 또 한두 명 이렇게 이렇게 이려고 놀이꾼이 있고 뭐 다구도 한 두세 너 개만 넣고 그러면 한 5~60명만 동호회가 만들어져도 1년에 한 번씩 그걸 재현할 수가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축제는 순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 말씀하세요.

(배양순)

이제 이제 다른 건 모르고 올 봄에 정동준 회장님을 몇 번 뵈어요.

그래서 운곡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모시고 또 식사도 하고 윤기중이라고 했지만 한약방 하시는 분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식사하고 운곡마을에 갔다 왔어요. 마을 가니까 입구에 당산. 아까 말씀하신 당산나무 있고요. 암당산, 솟당산이 있고 마을 안쪽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 탑석이 있고.

(김향순)

응. 입석

(배양순)

조그맣게 꺼멩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은 보존이 잘 돼 있다기보다는 약간 방치돼 있는.

(김향순)

그렇지. 방치. 그때도 그러더라고.

(배양순)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왔었고. 그때가 이제 전국에 지원 사업을 올릴 때 회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뵈었고요, 이제 이 공모 사업은 이 금액이 크지도 않고 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연구 작업이라. 오늘 선생님께 이

제 궁금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좀 그렇고 그 이후에 회장님. 한 분 모시고 정동준 회장님 모시고 또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부분을 좀 이렇게 근거로 조그맣게 삼아서 마을의 어떤 마을이 해왔던 거라든지 아니면 정동준 회장님이 지금까지 운곡액막이 갖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관한 부분 이야기를 좀 듣고.

(김향순)

이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대로 소멸되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이걸 자네들이나 순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걸 재현하는 방법을 원하니까 그걸 본인한테도 물어봐요. 어쨌든 시작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 들었으니까!

(배양순)

회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박영배 전 지부장님을 뵈어요.

자료 협조 차원에서 전화를 드려서 구하러 직접 얼굴을 뵈는데 거기는 박초월 대회에 꽃혀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박초월이라는 분이 순천분이다. 원래 태생이. 거기에 꽃혀가지고 그 이야기만 줄기차게 주구장창 한 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김향순)

지금 판소리가 아니고 요걸 찾는데 판소리가 나와.

(배양순)

순천에서 나는 이런 일을 했네. 하면서 나는 박초월이라는 사람이 순천 사람이라는 걸 찾아 다녔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문화재 관련 상신을 하셨나 봐요. 문화재 관련 이것도 정동준 회장님이 문화재 관련해서 상신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 여쭙보니까 왜 안 된 거냐 여쭙보니까.

(김향순)

법인인지 단체인지 어쨌든 만들었다고 보존회든지 뭐든 만들었다 그말이겠지.

(배양순)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신을 했나 봐요. 전라남도에다가. 근데 이의 신청을 이제 한 거예요.

(배양순)

그러한 사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의 신청이 돼가지고 이게.

(김향순)

응..그게 됐구나.

(배양순)

문화재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몸이 좀 아프셨나 봐요! 정동준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의 자료나 모든 걸 다 그냥 애정을 끊어버린거죠. 끊어버리고 신경을 안 쓰고 이걸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가 이제 여쭙봤어요. 정중히 여쭙보니까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러한 어떤 역사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악협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쭙보니, 국악협회는 아무 관계가 없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국악협회에서 물품도 보관하고 했지 않습니까? 관계가 지금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회장님 저희 단체가 이 일을 어쨌든 숙고해서 정말 성실하게 잘 만들어볼립니다. 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 허소. 자네들이 한다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향순)

국악협회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은 맞아. 그 당시에도 자기가 지부장이지만은 자기 마을을 위해서 그걸 발굴하고 작품을 해주라는 거지 순천 국악협회를 위해서 발굴해서 작품을 해주라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 뭔가를 하나 남기고 싶다고 해갖고 한 건데, 그러면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마침 형님 우리 마을에가 이려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형님이 좀 이리저리 만들면 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시작이 된 거지. 국악협회에 관여 없단 말은 맞아.

(배양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래서 올봄에 3월달 2월말 3월달쯤에 회장님 두 번 찾아뵙고 이제 했고요. 지금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선불리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체계를 세웠나 하면요.

지금 이제 6월달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회의를 했고 6월 둘째 주부터 영상에 있는 자료들을 어쨌든 분석을 하고 동선이나 가사, 노래, 곡 어떠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요. 또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동선이 다 정리를 거의 80% 이상 해냈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정리된 상황에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일단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다음 이제 정동준. 그다음에 회장님을 통해서 또 본인의 의사나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어디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정확히 여쭙보고 싶고요.

(김향순)

거기서 또 이의 제기하면 시끄러워져. 안고 같이 가고 어찌 보면 정동준 지부장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자네들을 자기 마을을 위해서 그 소멸 사장 되버릴건데 지금 살려내고 생명. 지금 우리 물줄기를 주려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네들 보고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할 필요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이 아니지

(배양순)

그런 뜻은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 이제 연구 작업은 이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책으로 만드는 부분들은 몇몇이 모여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1월까지거든요. 어쨌든 하고 그다음에 복원에 관한 부분들은

(김향순)

내년에나 되겠네. 복원 같은 것은 내년에나 되겠다..

(배양순)

한 4~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시하고 안 되면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순천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김향순)

참 좋은 뜻이네.

(배양순)

네. 어쨌든 좀.

(김향순)

순천은 복 받았구먼.

(배양순)

잘 해서

(김향순)

근데 그걸 안 알아준단 말이지. 관청이고 어디고 자네들이 그런 걸 하려고 애를 쓰고 이

렇게 조그만한 단체에서 없는 살림에 그런 걸 해갖고 순천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이 걸 재조명해야 된다는 뜻을 관청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도움 줘야 되는데 1년 지나면 저희들 가본 게 그걸로 땡이고 또 새로 온 사람 또 오면 또 그 다음 가보면 땡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거야 그게.

(배양순)

이제 순천문화재단 사업인데 재단 측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그쪽에서 예산 조그맣게 지원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순천의 중요한 어떤 자원으로 만들어지면 자기들도 기여도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또 교육 쪽으로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여수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면 소동줄놀이를 봤어요. 얼싸더리덜렁하고 진남제 때 보면 이렇게 전야제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순천은 진짜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잘 연결되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좀 민속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김향순)

좋은 뜻이네. 나로서는 나가 지도하고 출연했고 같이 22년 전에 고생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참 그걸 다시 어찌 보면 고목나무에 인자 새순이 돋게끔 하는 건 자네들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줘야지 얼마든지 좋은 뜻이지.

(배양순)

또 이제 여쭙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쭙보십시오. 저 이제 그거 하나 여쭙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약간 이게 어쨌든 정리를 하고 복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복원의 의미거든요.

복원 자체가 이게 지금 영상이지 않습니까? 영상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복원을 하게 될 건데 실제 노래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의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위에 어떤 연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극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을 사람들과의 이런 거 디딜방아를 떼러 가는 것도 약간은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김향순)

아니. 돌라갈 때는 연극적 요소가 있지. 전부 그 당시에 이려고 갔거든.

(배양순)

돌르러가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다가.

(김향순)

그 당시에는 이랬어. 어쨌든 저 마을에 사람들이 깨지 않게 하기위해서 그건 내가 기억해 제일 앞에 여자 선두가 서갖고 따라오라 그거야.

(배양순)

조용히요?

(김향순)

그러면 뒤에 여자들이 허리를 굽히고 살금 살금 살금 그 방앗간으로 갔어. 그래 갖고 열른 문 열고 그거 딱 집어넣으면 이래. 그러면 빠져.

(배양순)

그 남자들이 떼잡아요. 남자들이.

(김향순)

여자들이였어.

(배양순)

남자들이 떼가지고 여자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아니.

(전남숙)

원래 여자가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거예요?

(김향순)

여자들이 들고 왔어. 거 화면에 보면 여자들일 켜데.

(전남숙)

아니 남자들이 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봐야.

(배양순)

떼가지고 여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김향순)

아~~ 주는 것은.

(배양순)

떼가지고 어깨에다 메다 주는 건 남자들이 하고, 딱 어깨에 메면.

(전남숙)

여자들이 이제.

(배양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배양순)

그전 디딜방아를 떼러 가자라고 하잖아. 하면서 가잖아요~~

그 가기 전에 그 앞에 우리 마을에 뭐를 위해서 디딜방아를 떼다가 세웁시다. 이려고 가 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연극적인 요소를 좀 넣어서 복원을 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때는 경연 관계로다 시간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없지 않 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 번쯤은 그 부분이

(김향순)

그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은 이제 연극 하시는 그분들이 펜 한 번 놀리게. 연극성.

(배양순)

길게는 아니더라도 한 1~2분 정도 사연들을. 왜 그걸 왜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김향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지. 동네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지. 우리 마을에 이런 액운이 있고 재앙이 따르니까 그걸 막으려면 건너 마을에 우리가 디딜방아를 훔쳐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원래 회의가 이루어지는 연극적인 게 있어야지.그러면 옳쏘! 그렇시다. 그럼 언제 갈까요? 뭐 정월 대보름 몇날 몇시에 가자. 이런, 그런 거.

그런 건 관계없어. 그건 어긋나는 법이 아니야. 옛날에 그랬지만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은 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삭제했다고 그러면 그건 배선 생님 말이 옳아요. 왜 그러냐하면 전국대회에서 그러고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지루해 보이거 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대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회장님은 그러잖아. 술 따르고 인사만

하고 그만해. 처음부터 끝까지 유세차 이려면 심사위원들이 제일 싫은 거 그거요. 술잔 부어놓고 절하면 저것이 제인갑다 이려고 다 자기들은 다 안다 그거야. 근데 그것을 몇년 몇월 몇일 뭣하고 있으면 점수 주고 싶어도 안준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삭제야 옛날에는 했지만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하지 않는 것은 않는다 그거야. 그러니까 방금 배선생님 말대로 이제 이걸 하나의 이야기거리나 뭘로 이렇게 꾸준하게 복원을 하려면 그런 거 넣으면 좋지. 우리가 경연에 나갈 거야 아니니까. 복원은 한 시간으로 든, 40분으로 하든, 50분은 관계가 없어. 경연은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뺄 수도 있지. 그럼 배선생님 말이 좋아요..

(전남숙)

그러면 선생님. 아까 그 디딜방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떤 민속적인 동양철학이 됐든 앞으로 재연할 때도 반드시 그 법칙은 지켜야 되는 거죠?

(김향순)

그렇지. 원칙은 지키는 것이 좋은데 지금 시대가 우리가 옛날에 농악 상쇠가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옛날에 지금은 여자 빼놓으면 농악도 안돼.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다구를 당연히 남자가 하면 좋지만은 재연을 하는데 감이 없을 때는 여자라도 목 좋고 노래 잘하면 하는 것이 낫지. 요새 저 여자 상쇠가 옛날에 어디가 재수 없다고 안 했지. 그렇지만 지금은 여자들이 더 기고 날잖아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꼭 남자가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어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김향순)

어떤 데는 구암 같은 데는요. 거기애다가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어떤 거식이 아니라 수염을 상징이요!

(배양순)

이 수염으로 나온 데도 있고

(전남숙)

기러기 수염?

(김향순)

수염으로 이렇게.

위에 나무가 이렇게 기러기로 있으면 밑에 이렇게 늘어져.

(배양순)

혹시 짐대를 세우는 것을 보면 마을 앞에다가 세우고 중간중간에 세운다고 나는.

(김향순)

내가 하는 회장님한테 들은 이론은 그 기러기를 세우는 것이 그 마을에 화마나 나쁜 불을 기러기가 물에서 자잖아. 이게 화마를 막는 기능도 있고 이정표 역할도 했다고 들었어. 마을 입구에 세워놓으니까. 그럼 여기 들어오려면 요 앞에다 세워놓으면 아 이 소리골 남도가 여기 들어오는구나. 이정표 역할 두 가지 기능을 했다고 그래. 회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주로 수염을 기러기 수염을 만들어 곡식을 거기다 했던 말은 나는 못 들어 대나무를 얇게 깎아. 그전에 전국대회 구암 물보기곳. 거기 전국대회 갈 때도 대나무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잘게 쪼개갖고 거기다 휘어지게끔 이렇게 수염을 깎다고.

짐대라고 하기도 하고 솟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지.

(추성민)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게 이제 수이기도 한데, 오리 이런 애들이 물을 뿜어내는 현상 갖고 불이 오면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어. 해갓고 물 뿌리는 형상을 또 상징화하려고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했다.

(김향순)

그런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승주 주암면을 가보면 거기가 물보기 곳이 문화재로 지금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솟대가 잘 돼 있을 거야. 그거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전남숙)

같이 한번 가봐야 되니까.

(김향순)

그래갓고 우리가 전국대회 갈 때 그 주암 안에 그 학교에서 연습시키고 그랬어. 밤에

(김향순)

물보기 물을 본다.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려면 그 마을에서는 향아리를 땅에다 묻어요. 땅 속에다

(전남숙)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맞아요.

(김향순)

땅에다 묻어갓고 위에 뚜껑을 딱 덮어놔. 덮어놓고 그 첫 해가 풍년이 든가 하는 거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그 자연적으로 생긴 물 양에 따라서 적게 들으면 흉년이고 물이 많으면 흉수가 나고 그래서 적당히 차야지 그게 풍년이 든다고 그랬어.

그 노인들이 말이 주암 물보기 곳도 있고, 이 그러고 보니까 순천의 문화재가 두 개다. 승주 달집태우기도 있고 맞아.

(배양순)

여기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게 저희들이 순천에 찾아보면 이게 안 나오는 지가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향순)

그럼 끊겼는가 보다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응. 있어요. 솟대를 참 잘 만든다.

(추성민)

90년도 몇 년도에 문화재가 됐다고 있었는데 순천 막 찾아봤죠. 그런데 없어요. 중간에 뭐가.

(김향순)

가서 돌아가시면서 밑에가 후계가 없어. 달혀버리니까.

(추성민)

지정되었다고는 써 있던데 찾아보니 없어요.

(박재철)

97년 5월 15일.

(추성민)  
돼 있었는데.

(박재철)  
도문화재.

(김향순)  
그래 맞아.

(박재철)  
구산 용수제로 되었는데.

(김향순)  
그래 맞아.

(전남숙)  
구산?

(김향순)  
구산 마을. 근께 구산 용수제 맞아.

(김향순)  
구산있어. 송천 달집은 1년에 한 번씩 하더라 항상 보면. 그것도 국무총리상 나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그거 타러 갔을 때 나는 맹장이 터져 갖고 성심병원에 입원해 있어갖고 못 갔거든 전국대회. 그때 그것을 경상도인가 어딘가 했는데 참 회장님이 머리가 좋아.

달 떠온다~~ 그러면, 하늘에 달이 떠 갖고 와서 인자 그 불을 지르거든 달집에다가. 근데 한 달 전부터 막 머리를 싸매고 막 뭘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달을 뭇로 상장을 해갖고 만들어야지. 연출을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을까 어쩔까? 나중에 방송에서 보니까 애드벌룬 노란색 그걸 저쪽에 누구 보고 들고 서 있으라고 했다가 이제 이쪽에서 신호 딱 주면 짹 올리면 이쪽에서 달떠온다 그래갖고.

그런 게 이제 연출가는 그때그때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 그래갖고 나는 성심병원에서 맹장 수술 해갖고 드러 누워있고 딱 이거 가지고.

언제 도문화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문화재 위원 보고 거의 소멸돼 불었는지 소멸이 됐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송춘에 1년에 한 번씩 달집 태우기로 하나까 계속 전승이 되니까 그 뉴스에서 보면 맨날 나오더라고. 저기 정말 대보름 때 뭐 전남권 뉴스에서 어디서 달집 태우기하고 어디서 뭐 했다고 송춘은 계속 연결되는데.

그러보니까 순천이 많이 작품을 좋은걸 많이 했구나!  
옛날 승주 들노래도 있었어.

(전남숙)  
승주 들노래요?

(김향순)  
내가 만들어 줬었어! 그래 갖고 그 선창을 내가 누구를 가르쳤냐면은 남편이 저 한우 나 오는데 거기 어딘가? 황전. 황전에 노래 잘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 영감이 저기 한약방 하고 마누라가 노래를 좋아해서 맨날 노래만 부르러 다닌게 영감이 그냥 질투해서 못 나가게 막 붙잡아 놓고 그랬거든.

그 양반을 가르쳤는데 목이 역세 역세니까 힘은 좋고 막 그런데 좀 역세. 그래갖고 남도 문화제에서 대상까지는 탔어. 그런데 전국대회는 못 나갔어. 그래갖고 우리가 어디서 그 사



람을 연습을 시켰다면은 저 지금 없어졌어 승주 군청 있잖아. 군청 마당에서 우리가 연습시키고 그랬어.

그 전에 승주 마을 지부장님이 굉장히 국악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갖고 그 양반이 딱 우리 하나 뭐 하나 하자고 그래갖고 몇 개 주서 갖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갖고 승주 들노래를 하나 만들었어.

(전남숙)

낙안면이지요. 면이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서 물러내려오는 이런 자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시내쪽으로는 그런 건 없었죠.

선생님 그러건 없었죠?

(김향순)

순천시는 순천시내는 없었고 낙안애가 예술인들이 다 살았어. 회장님 그 전에 조사해 놓은 거 보면은 저저 저 저 뭐냐 우리나라 1세대 명고라는 그 누구야 오성삼씨 있잖아. 오성삼씨가 낙안에서 왔단 말이 있어. 회장님이 조사를 해 보내놓은 거 보면 거기서 왔고.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 오태석선생이로 뭐로 다 낙안 출신이야. 그러니까 낙안애가 어찌 보면 예술인 집단촌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들 다 나와갖고 요리 가고 저리가고 저리가고 요리가고 무가는 회장님이 저기 조사를 해보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고흥쪽에서 많이.

(전남숙)

무가쪽은?

(김향순)

무가는 고흥에서 많이 나와. 고흥서 나왔고, 요리조리 순천 어디로 퍼졌고 예술인들 가야금 병창은 오태석이니 명고인 오씨 그 같은 집안이라. 조사를 해보면 오태석이니 그 저 일대 명고인 오성삼이랑 그쪽은 그 윗대들이 전부 낙안에서 살았는데 조사해 보면.

회장님이 오성삼이 하면서 막 주민등록 등본 뭐 호적등본 막 그 전에 막 떼러 댕겼거든. 오성삼씨 그 비석 세우고 할 때 고흥애다가 지금은 그 비석 누가 관리도 않고 고흥 사람들 모르더라 잘 오성삼이 누구냐고. 군청에도 모르데 문화원도 모르고 그런데 고흥 사람들 고흥 문화원 원장을 보고 명창대회만 하지 말고 오성삼 고수대회를 하라 그거요.

고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야 김연수씨 책에도 보면 1세대 명창이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북을 잘 치셨대 생긴 것도 잘 생기고 아주.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없잖아. 다 개체들 그때만 해도 무당 자식이 또 단골내 새끼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 떠나붙고 없어갖고 인제 산속에 이름도 없는 걸 그때 회장님이 유산 고유회를 만들어갖고 그 시체를 산에서 파가지고 땅 해갖고 비석으로 묘석까지 다 만들어가고 그때.

그런데 문화원도 모르더라 그 오성삼이에 대해서. 그래갖고 회장님 몇 번 이야기한 게 이제 나중에 뭐.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김연수실 오성삼실 만들어만 났어. 근데 별로 관심 없더라고 고흥사람들은.

(전남숙)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동부 지역이면 여수 광양, 순천, 고흥. 이렇게 어찌 됐든 이 금방에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민속놀이나 노래가 있었고 순천에 두드러지게 독보적으로 좀 잘 불렀던 노래나 아니면 여수.

(김향순)

순천 여수는 솔직한 말로 딱 부러지게 하는 노래가 없었어.

우리가 알기에는 주로 동부 쪽에. 그래서 옛날부터 동부 쪽에 명창들이 별로 없었네. 목 좋은 명창이 없어 참 묘하다고 그랬어. 애잔하게.

(전남숙)

고흥출신들은 좀 있잖아요

(김향순)

동부 쪽에서 그중에서 목 타고난 사람들이 고흥 출신들이야. 그 외에는 동부 쪽에 소리꾼이 그렇게 많이 없어. 광양도 별로 없고 여수도 목 좋은 사람 없고 근디 동부 쪽에서는 고흥쪽이 제일 낮고.

서부 쪽으로 가면 목포, 해남, 진도는 목들이 타고 났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도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토양에서 오는 그런 점도 있다고 보더라. 어쨌든 이쪽에는 노래꾼이 없어.

(배양순)

영상 있죠. 영상. 영상 그거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 인사긔 치고.

(추성민)

맨 처음에요.

세 번. 아~~. 인사가락을 치는거.

(전남숙)

그러니까 우리 대회 때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했던 거하고 좀 다르지.

(배양순)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잘 안하셨죠. 다른 여자분이 했지.

(김향순)

몰라! 나는 전국대회 때만 했지. 그 뒤에는 안 했어.

(배양순)

이거 끝나고 나면 인사를 하거든요.

(김윤설)

그게 다 마당별로 다 똑같지 않고 다르기도 하고.

(김향순)

짐대를 세워 놓고 인사를 하는 거야.

(배양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또 하거든요. 세 번 하는데 처음에 인사를 땅땅 땅땅 다다당 땅 땅 딱 하고 보통 끄땅땅땅 땅하고 세 번 하고 털고 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땅땅 땅땅 다다당 땅 땅 딱 그 땅땅땅땅땅 또 이렇게 또 한번, 세 번 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 하거든요.

보통 풍물 곳에서 보면 이채 치고 딱 땀으면 바로 땅땅 땅땅 처음에 시작할 때 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갱갱 갱갱 개개갱 갱 갱 객은 처음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곳이 끝날 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사를 지낼 때나 이럴 때는 보통 그냥 터는 걸로. 삼배 하는 식으로 보통. 이제 절차를 보통 그렇게 하는데.

(김향순)

인사 세 번 해라 그러니까 한 거지.

(전남숙)

그러니까 굳이 인사를 하기 아니면 놀이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고

(배양순)

그게 아니라 인사굿 자체가

(김향순)

그리 아니허믄. 또 이런 경향도 있지 노래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땡땡 땡땡 하면 아 이걸 인사하는 곳이구나 알아 듣는게 그 신호일 수도.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있거든. 상쇠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아니하면은 이것을 침으로 해석은 나머지 아까 76명인가 몇 명인데 79명이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그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기능으로 한 것 같고 근데 그걸 꼭 어느 것이 맞다 할 수는 없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어쨌든 이제 짐대를 세웠으니까 이제 짐대 신에게 이제 정중하게 절을 하는 거지 세 번.

(배양순)

그 부분 때문에 좀

(김향순)

그건 이제 배 선생님은 보시겠쥬. 아까 같이 털기만 세 번 넣더니 그건 관계없어요.

통일 하기 위해서 이쪽 사람들은 그냥 따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도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꼭 인사 구절 앞에다 이렇게 치면 전부 농악 치는 사람들이 내놓은 게 알아듣고 저런가 보다 그러고 저럴 수도 있어.

(김윤설)

그때 옷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양 갈래로 검은색 빨간색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김향순)

응. 그거는 우리가 연출을 할 때.

(김윤설)

극적인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그게 좀.

(김향순)

아니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야. 좀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색깔로 그리고 옛날에 검정치마나 자주색 치마를 엄마들이 많이 입었어. 그래서 그걸 이왕에 똑같은 돈 주고 옷 해 입을 바에는 그냥 반반씩 섞어서 하자 이랬지. 그걸 꼭 반반씩 갈라서 해 입혀야 된다는 그거는 없었어.

(김윤설)

그거 하고 이렇게 마당별로 마지막 털 때 인사굿 하는 거 있고 안 하는 거 있고 그게 궁금했었고 막 주술하잖아요. 주술할 때 남자들 짹 빠져 숨어 있다가 여자들만 있다가 그게 모여서 막 이렇게 빌다가 노래가 끝나면 그때 막 남자분들이 이렇게 짹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김향순)

그럼 뭇혈때 나오던가?

(배양순)

여자들이 하는 역할들 여자들만 하는 역할들이 있고 남자들.

(전남숙)

디딜방아 고사 지낼 때 여자들만 하는.

(배양순)

일단 남자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김윤설)

숨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아예 안 보이는 대로 뒤에 완전히 빠져 있게 지금 옆에 서 있는데.

(배양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서 있을 데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김윤설)

그니까 의도적으로 아예 없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딱 숨어 있다..

(김향순)

남자들이 떼어 갖고 오구만. 그래 갖고 여자들을 주구만.  
떼기는 남자들이 떼고, 들고 운반하기는 여자들이 운반을 하고만.

(김향순)

아! 인제 생각이 난다. 이 사람이 이려고 이것이 지금 디들 방아를 떼어온 집이잖아. 동네 짱아. 망을 보고 있어 마을에서 쫓아올까 자기 것 돌아가니까 쫓아올까 싶으니까 거기서 망을 보고 이걸 본 게 기억이 나고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돌아왔기 때문에 행여나 이 마을에서 쫓아와서 다시 뺏길까 싶은 게 망보고 있다.

(배양순)

나와. 나오니까 또 말리더라.

(전남숙)

맞어. 말리더라구.

(김향순)

본게 그 용도야. 왜 왜냐하면 무사히 다 떼갖고 여자들한테 넘겨줬는데 마을에서 이제 쫓아와서 뺏어갈까 싶은 게 그 마을 사람들 오나 안 오나 망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그 다음.

(김윤설)

그 아까 주술 할 때. 여자들끼리 할 때 동그랗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딱 앉아서 이렇게 빌짱아요. 그때 남자들이 있는 옆에 서 있는거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데서.

(김향순)

주술 아까 어디 언제 주술했는지?

(배양순)

여기 남자들 남자들은 없습니다. 여기가.

(김향순)

이거 갖다 놓고 이제 무당들이 올 거 아니야 그걸 봐야지 이제 다 쪽 보내봐.

(김향순)

동네 애기들이 없는 동네가 없지.

(전남숙)

디테일하게 연출하셨네. 그러니까 나 좀 있길래 거기 놀러 온 애들인가.

(김향순)

일부러 투입을 시켰어.

(배양순)

이쪽 뒤에 숨어 있어 남자들은.

(전남숙)

아까 그 고쟁이 빨간 -아들 잘 낳는 집- 속곳에다가 진짜 저거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냈을까. 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했을까 저건 속곳에다가 피 묻혀서 디딜방아 고사 지낼 때.

(김향순)

원래 옛날부터 그랬다니깐.

(전남숙)

무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마을에서?

(김향순)

마을에서.

(전남숙)

마을에서 그걸 알려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향순)

마을에서 그래왔지. 해 왔지. 피 묻은 속곳을 걸어야지 액을 막는다고.

(배양순)

음양 사상이잖아. 음양 사상 동양철학 안에서.

(전남숙)

여기 다 여자들만. 이제 그것도 여자들이 디딜방아 가져온

(배양순)

이거 할 때는 여자들끼리만. 여자들이 지내는 거지 남자들은. 지금 하고 계신데요.

아들이

(전남숙)

어. 지금 하고 있어.

(김향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속곳이 여자를 여자잖아. 여자를 상징하니까 아마 그 디딜방아를 해서 여자 속곳을 걸어 놔야 피 묻은 속곳을 걸어놓으니까 좀 남자. 여자의 어찌 보면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남자들은 안 오고 여자들만 그 제를 지내지 않을까 그건 내 생각인데

당사자라도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속곳에 또 피가 안 묻었다면 또 모르는데 여자들의 치부잖아 속곳에다 피를 묻혀서 이걸 이렇게 걸어놨는데 남자들이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 줄 수도 있지. 의도적으로 여자들 그거 좀. 여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했으니까.

저것도 썩 빠지게 저거 가르치느라고. 못 헌다는 걸 살살 꼬셔가면서 할 사람이 없어갖고

그것은 아까 그 남자들이 안 보인다는 것은 나 생각은 그런 뜻일 수도 있어.

(전남숙)  
그렇겠네요.

(김향순)  
여자들 생각하는 것도 여자의 치부를 남자들이 보고 앉았다는 것. 또 그리고 여자들이 이래 갖고 있는데 그 앞에서 또 남자가 업져서. 좋아 한다는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고. 제를 지낼 때만큼. 여자들 거시기니까. 맞아 그런 뜻일 거야.

(전남숙)  
원래 당산 할 때도 여자들 못 오게 했잖아. 옛날에 남자들만 할 때.

(김향순)  
여자들이 거시기 할때 옛날에 배도 여자들 배 못 타게 했잖아. 옛날에 재수 없다고 배도 안 태웠어. 여자들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여자가 먼저 배에 거시기. 뱃머리에 가 있으면 남자들은 재수 없다. 그날 배 운항도 안 했다고.

(윤미라)  
하여튼 옛날에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

(김향순)  
또.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는 데까지는 대답해 주고 나도 모르는 거 모른다 해야지. 괜히 모르면서 앉아.

(김향순)  
꼭 옛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시대가 변하니깐 그 당시에 부족했던 점은 요새 조금. 그 대신 기둥은 반드시 지켜야 돼. 기둥은 지키되 이제 화채 가락만 약간씩 입혀야지 너무 그것을 옛날 것은 무시해 보고 현대에 거시기 해보면 이제 그건 이제 전통성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옛날 거는 하되 조금 거기에다가 조금 약간 가미할 것은 가미하고 또 옛날 것이라도 저건 좀 그렇다 한 건 조금 삭제해도 되고 그게 이제 복원 사업이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

(배양순)  
그럼 궁금한 건 이제 있어도 그만 질문하시고 개인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차후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또 미숙하나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